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일 시 2025년10월14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최휘영 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문화정책, 예술, 종무, 문화산업, 저작권, 미디어, 체육, 관광 및 국정홍보 업무 등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 수출의 규모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K-콘텐츠는 캐이팝과 K-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한국 뮤지컬의 토니상 6관왕 수상이라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며 문화강국으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고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휘영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종료 후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고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은 본인의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

용하는 것으로 하되 주질의 7분을 하지 않으신 경우 증인 신문시간 5분에 더하여 12분을 증인 신문에 활용하실 수도 있으며 주질의 7분을 하신 경우에도 추가질의 3분을 미리 활용하여 8분을 증인 신문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음성을 포함한 동영상 송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제삼자를 통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거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의 간접 증언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영상 송출 관련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영상 송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5년 국정감사도 지난해에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이 없는 국감의 일환으로 종이 문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유인하지 않고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기관증인은 총 27명입니다만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감사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양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중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최휘영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김재현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공형식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위원장 김교홍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희영 장관님,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입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체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문체부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김재현 대변인입니다.

최현준 감사관입니다.

이정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공형식 소통정책관입니다.

정태경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최성희 체육협력관입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이순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게임 등 산업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토대인 예술에 있어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K-컬처 300조 이상을 만드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서둘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10쪽입니다.

방한 관광시장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시장 전반을 점검해서 새로운 관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K-컬처가 이끌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3000만 이상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계층·세대 등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문화와 스포츠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향유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문화와 관광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11쪽,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 자본도 대거 끌고 오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중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춤하는 게임 수출을 다시 성장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중음악 쇼케이스 등으로 유망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돋고 웹툰 분야에서 글로벌 슈퍼 IP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맞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서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인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절차를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세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K-컬처의 도약을 위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 분야 장관급 회의를 열고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신라금관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외 수출기관을 한데 모은 코리아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콘텐츠 수출을 돋는 비즈니스 센터도 3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 연관산업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연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박람회 등 홍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과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2025년도 국감-문화체육관광(2025년10월14일)

지역 예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를 발굴해 육성하고 우수한 공연과 전시가 지역에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해 로드쇼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적립계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방한관광 3000만 조기 달성을 지역관광의 육성입니다.

K-관광을 세일즈하기 위해 K-콘텐츠 IP와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로드쇼 개최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으며 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등 출입국 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케이팝, K-뷰티, K-푸드 등 K-컬처와 연계된 차별화된 패스티벌과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숙박할인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개선 등 관광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째,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역 중심의 문화누림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해 말 선정된 13개 문화도시·문화선도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 주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 함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큰 대회의 참

가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스포츠의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는 국립스포츠박물관이 내년 9월에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다비체육센터 조성과 함께 우수선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사항 등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조은희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인 협의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이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중인이 미채택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K-콘텐츠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통 채널인 넷플릭스를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IP산업 한계와 제작비 인플레이션, 영화산업 위기, 국내 산업의 종속 구조 등 콘텐츠산업의 모든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인도 아닙니다. 정책질의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중인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재명 대통령도 글로벌 OTT 플랫폼에 종속된 콘텐츠산업 구조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다 주고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감 중인에서 빼 준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 앞에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체부 국감에서 넷플릭스를 빼고 어떻게 콘텐츠산업을 논하겠습니까? 넷플릭스 중인 채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통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대통령 방송을 유통해 주니까 국감에서 빼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게 넷플릭스 중인 채택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당 간사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중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4일에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빙상연맹 사태 관련해서 중인 채택 요청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빙상연맹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수경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고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조차 이수경 회장이 아닌 박세우 전무이사만 증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빙상연맹 사태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닌 법원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지도부의 전횡이기 때문에 반드시 빙상연맹의 대표인 이수경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수경 회장은 빙상연맹에 사건·사고가 많아 이런 시스템을 바로 바꾸고 싶어서 회장에 출마했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빙상연맹은 과거에도 폭행 그리고 성범죄를 은폐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도자가 현장에서 흉기 피습까지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빙상계의 구조적 병폐가 여전히 뿐만 아니라 뽑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국회가 이 책임자를 증인석에 세우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가 빙상연맹 전횡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함께 동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경 회장과 박세우 전무이사를 함께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국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야구위원회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국기원 같은 문체부 소관 국비 지원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사업비 명목이므로 해당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기타 예산과 기관 운영에 관한 자료는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실질 구조와 재정의 기본 원칙을 몰이해한 그런 태도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기관에 교부되는 순간 해당 기관은 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부담이 줄고요. 그만큼 다른 항목에 여유 재정이 재배분되지요. 즉 사업비와 운영비는 회계상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재정운용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 재정운용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통제권이자 헌법적 책무입니다. 지원받은 사업비 집행 내역만 제출하겠다는 주장은 국민 세금의 절반만 공개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님, 문체부가 이렇게 불합리한 논리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들을 비호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요구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 응답을 해서 자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도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고 또 불리한 것은 제출을 거부하는 선택적 자료제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이후 대통령 및 영부인이 참석했던 행사 리스트와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자료제출에 대해 국감 방해라고 굉장히 강력히 항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역처럼 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국감 불출석은 물론이고 지금 문체부와 관련한 산하기관장에 내정 의혹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산망 화재사고로 대국민 서비스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난 10월 1일 대중 문화교류위 출범식이 있었고 여기에 무려 4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 이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자료만 나왔지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라든지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출한 자료 중에 허위 자료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산망 화재 이후에 부처별로도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관련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다 대면회의를 한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세 번 정도만 이렇게 대면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텔 방에, 회의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허위 내용을, 공공기관인 중대본에조차도 실제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텔방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텔방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라도 자료제출을 조속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인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도 웹툰의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또 포털 조작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 위해서 네이버 대표를 중인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 네이버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도 거부되었다는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아울러서 APEC과 관련해서 신라호텔에 결혼이 취소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도 관련자를 중인 요청했습니다만 거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 여부를 따져 보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거절됐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울러서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료제출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번 2022년 국정감사를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형배 위원 2025년.

○**배현진 위원** 25년. 22대와 헛갈렸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문체부 기관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당부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어제 저녁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아주 황당한 팩스 하나를 저희 의원실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사진행발언은 관련 자료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가져왔는데요. 내용인 즉 저희가 문체부의 몇 개 기관에 수의계약이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집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중에 어떠한 특정 업체가 저희 의원실에 '금번 귀 의원실의 자료 요청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일을 지위를 이용한 소기업 괴롭히기로 보고 매우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한다'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 이러한 자료 요청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할 시 인건비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로 인한 평판 하락과 매출 하락 발생 시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를 의원실에서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공문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자료 요구는 국회의 보안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정 업체가 저희에게, 저희가 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기관이 업체에다가 요구한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어떤 의원실에서 했다라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설을 해서 이러한 공문이 오게 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삼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요 한 해 동안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또 집행된 예산들이 여러 사업들에 쓰일 경우 그 사업의 생태계를 공정한 환경에서 조성해서 관리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 예산을 내신 우리 국민들께 다시 보고하는 그런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최희영 장관께서 첫 번째 국정감사의 자리인데요. 문체부가 이러한 태도로 지금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겠지요, 장관님?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우리 문체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아마 고발을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에 관해서는, 이거는 위원장님께 직접 드리세요.

해당 기관이 오늘 아침에 실수였다고 장문의 사과 글을 보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단단히 장관과 모든 각급 기관들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장관도 각급 기관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배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장관님,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엄중히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국정감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의원들한테 업체에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해당 분야의 국장

한테 분명히 말씀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강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배현진 위원과 관련, 배현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위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회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실국인지, 그게 어떤 기관인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문제부장관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회의 중이라도 저희한테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장관께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박정하 간사가 얘기한 대로 장관께서 이따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경위를 파악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최희영 장관님, 뮤즈 들어 보셨지요? 올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300억의 매출 고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TV 방송을 비롯해서 온라인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매우 화제가 되면서 오픈런 사태까지 유발시키는 아주 특이한 기현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만든 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브랜드 상품이 처음으로, 우리 K-콘텐츠가 무형의 자산으로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유형인, 그러니까 기념품의 차원에서 하나 더 발돋움해서 유형의 자산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뮤즈 로고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 기관에서 소위 굿즈를 만든다, 기념품을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하이퀄리티의 어떤 우리의 자산을 만들어 간다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하는 인기 덕에 지난 8월에 베트남 영부인이 방문했을 때는 직접……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방문을 하셨을 때는 뷔즈샵에 가서 우리 반가사유상의 조그마한 미니어처 뷔즈가 없다보니까 아예 큰 거를, 전시돼 있던 걸 그냥 사 갔다는 일화도 있고요. 또 최희영 장관께서도 본인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행사에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20개국 장차관들에게 APEC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걸 소개하기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300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아주 세우셨어요. 그런데 뷔즈 사업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됐고 세계 어느 VIP가 와도 우리가 자랑거리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업계 전반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 들어 보셨습니까? 300조 달성하려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보강도 있어야 되지만 업계에 대한 현실 파악도 해야 되잖아요. 장관님, 지금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각 분야별로 업계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 제가 오늘 이 국회의원 배지 말고 양쪽에 뷔즈 중의 히트 상품인 까치와 호랑이라는 이 배지를 달고 나왔어요. 두 개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너무 멀리, 작아서 안 보이는데……

PPT로 띄워 주시겠어요?

보기에 똑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왼쪽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와 달고 있는 것이 우리 재단에서 만든 뷔즈 정품, 까치와 호랑이 배지고요. 오른쪽은 알리 등 중국 SNS, 온라인 포털에서 팔고 있는 짹퉁 상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 좀 무거운데 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키보드를 들어 보이며)

이게 품질 사태를 빚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키보드입니다. 장관님, 원손·오른손 어느 게 진짜 같으세요? 하나는 중국산 복제품이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먼 데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멀리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이것도 역시 중국 쇼핑몰에서, 안 그래도 동북공정 하면 저희가 머리에 열날 정도로 화가 많이 나는데 중국 고대 건축 측면이 새겨진 키보드라고 해 가지고 우리의 기와, 단청을 모델로 해 가지고 만든 우리 아이디어 상품이 이런 식으로 지금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재단에서 만든 기념 상품을 중국 같은 나라에 OEM으로 대량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소업체나 작가들이 아주 소량으로 적은 인력으로 어렵게 이렇게 생산해서 많이 팔지도 못하는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이것을 히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문체부가 지금 이분들을 돋고 이 상품을 문체부 300조 K-컬처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장관님? 많이 만나셨으니까 아이디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렇게 K-컬처를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들이 탄탄하게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마 가장 쉬운 길일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문체부는 한 해 수백억 원씩 들여 가지고요 문체부 산하에 저작권 보호·진흥을 위한 저작권위원회와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있고 또 각 해외에는, 웰콘이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각국의 법령 정보를 취합해서 그곳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돋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을 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되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지금 짹퉁 상품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몹시 화가 나지만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복제품, 가짜 상품들을 전부 문체부에서 단속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출처는 정말 고혈을 짜내서 만드는 우리 작가들 그리고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런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뮤즈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문체부에서 뮤즈를 생산하는 기관, 재단과 여기서 함께 일을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강구해서 마련해야겠지요. 이것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두 번째는요 라부부라고 들어 보셨어요?

라부부 사진 좀 띠워 주실래요.

블랙핑크, BTS 등의 우리 한류 케이팝 스타들이 액세서리로 달고 나오면서 굉장히 선 풍적인 인기를 끌고 제가 알기로, 저도 안 사 봐서 모르겠는데 10만 원 내외로 처음 구입해 가지고 이 리셀가가 역대까지 이르는 굉장히 인기를 끈 중국의 디자인 인형입니다.

이것 보면요 진품도 있지만, 요즘 우리 동네 골목에 가면 인형뽑기샵들 있지요? 거기 가면 저것 모방한 가짜 복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예.

○**배현진 위원** 국내에도 저 라부부 복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처음에 만든 그 업체가 저것 다 단속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그 가짜를 사려고 하지 않고 진짜를 찾아서 진짜를 리셀하고 그 가치를 올리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요.

저는 우리 블루스 상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어서 가짜가 판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속하는 문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블루스라는 상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게, 진짜 상품을 찾을 수 있게끔 프리미엄화하는 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이거다’라는.

그려려면 기관들이 예산 받아서 쓸데없이 다 굿즈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하는 것도 관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블루스다’라고 하는 특정한 뭔가로 고를 새기든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차후에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IP 보호하는 게 사실 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전통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IP화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처럼 짹퉁이 나오더라도 우리 것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프리미엄화 준비도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 **민형배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감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업무 전반에.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안 돼 있는 게 조금 전에 인사말씀하시면서도,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대전환에 맞춰 가지고 AI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플러스 문화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AI 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너무 심각한데 그중에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연구하는 관련 기관이 없는 거예요. 1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CT연구원을 만들자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무산이 됐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현황 파악하는 것하고 이것 뒷받침하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문화기술연구원, AI CT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자료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 해서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I 콘텐츠 진흥에 대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관련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장관님, 문체부가 출판과 문화정책 관장하는 부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들어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서 ‘위안부는 매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얼마 전에 이 책을 공개적으로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해서 11년 만에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 모 명예 교수를 특별공로상 수여하려다가 취소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출판의 자유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그런 일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피해자의 존엄과 공동체의 정의를 짓밟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민형배 위원 역사 왜곡 간행물에 대한 대응 원칙 이것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마련해서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법령도 개정하고 문체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꼭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장관님, 추석 연휴 동안에 KBS에서 방영한 ‘떡의 나라’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못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서 K-컬처, K-푸드의 미래를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면요 꿀떡을 우유에 넣어 먹는 꿀떡 시리얼이 해외에서 아주 인기랍니다. 미국 NBC 뉴스에서는 떡볶이가 미국의 입맛을 장악했다는 기사가 나오 옥스퍼드 사전에는 ‘떡볶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재가 됩니다. 쌀 가공식품이 7년 사이에 한화로 4400억, 4300억 정도 수출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K-콘텐츠가 가진 힘이잖아요. 연휴 때 이재명 대통령 출연한 K-푸드…… ‘냉부해’? ‘냉부’라고도 하고 ‘냉부해’라고도 하던데요.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K-푸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K-푸드 관점에서는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해외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민형배 위원 주로 이게 농식품부 소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K-컬처의 힘이 문화부, 문체위 소관 업무에서 나온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K-컬처 300조 시대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 다섯 가지 산업이 뭡니까? 케이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게임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K-푸드가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이런 케이팝 위상에 또는 K-컬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게 경호입니까, 아니면 폭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누가 봐도 폭력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10대·20대 여성 팬들을 상대로 난폭하게 제압을 하는 폭력이지요. 이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잉경호가 인권침해다 이런 진정이 제기됐고 처벌을 해 달라는 국회 청원도 저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쪽의 계약서를 한번 입수를 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계약서 원본인데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A 기획사인데요.

혹시 장관님, 지난 2일인데 변우석 씨 경호원이 승객 얼굴을 향해서 플래시를 비춘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것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들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경호원하고 기획사에다 각각 100만 원씩 선고를 했잖아요. 재판부가 이것 경비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비업법에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계약서를 보면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우산 도구로 아티스트를 가리는 행위, 팬에게 플래시 또는 레이저를 비추는 행위 등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법하고 지금 이 계약서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과잉경호 때문에 발생한 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상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사 협단체에 저희도 협조 공문을 보내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살펴보니 더 강하게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과잉경호가 어느 정도인지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보도들, 기사 검색하면 죽 나오는.

자, 봐 보세요. 저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유명 4대 기획사에다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봐 보시지요. 한결같이 ‘해당 사항 없다’, ‘그런 것 없다’라고 나옵니

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문체부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문체부에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공유된 내용이 없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죽 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문체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혹시 장관님, 퍼플라인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못 들어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BTS 팬들이 아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이 아미가 스스로 만든 안전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K-컬처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도약을 하는데 저런 잡음이, 경호 폭력 같은 잡음이 일지 않을 거거든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민형배 위원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가 기획사 등록받고 법정 교육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과잉경호를 그대로 두고…… 안 됩니다, 이대로는.

자, 해외는 보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안전법에다가 이 지침을 정확하게 넣어 놨어요.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만 근접 경호할 수 있다, 경호원은 국가민간보안위원회가 발급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또 도덕성 교육, 기본권 존중, 이런 엄격한 의무를 저렇게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프랑스 국가안전법, 국가민간보안위원회, 근접 경호 지침에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경호활동이 규율이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실태조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경호 가이드라인 만들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서초갑 조은희입니다.

장관님, 지난 6월 부산 브니엘예고 한국무용 전공 학생 3명의 충격적인 동반자살 사건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 꽂다운 학생들의 비극적 선택의 이면에 무용계의 고질적인 병역비리, 입시비리, 학원과 학교의 카르텔이 얹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제보를 받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보기 전에 장관님, 병역특혜의 일환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은희 위원 피아니스트 조성진, 수영의 박태환 선수, 이런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수상하거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혼역 군복무 대신 봉사활동하면서 대체복무하라고 배려해 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병역특혜를 위한 비리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요 병무청, 문체부가 인증한 예술대회에서 5년간 1등 또는 2등을 해서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입니다. 예술요원은 1년 반 동안 군복무하는 혼역병하고 다르게 3개월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군복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내 개최 대회를 통해서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의 88%가 넘는 76명입니다. 그럼 이 중 무너만 국제대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내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은 몇 명일까요? 모르지요? 28명입니다.

장관님, 저는 오늘 이 중에 무너만 국제대회의 시즌1 무용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니엘예고의 불행한 비극이 있기 때문에 무용편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현대무용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 비중이 평균 84%, 본선 진출과 입상 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5년간 그 결과 총 5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습니다. 박재근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한국발레재단이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발레콩쿠르, 참가 비중 64%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4명이 대체복무자로 선정됐고요.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참가 비중 62%가 한국인이고 5년간 총 13명이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3개 대회를 통해서 5년간 편입된 인원이 22명, 전체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조남규·박재근 상명대 교수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참가자 80%가 한국 사람인데 국제콩쿠르라고 수상자에게 대체복무 특혜 자격증을 남발하는 이분들, 문체부가 왜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무너만 국제대회로 눈속임하고 병역특례 통로로 이용하는데 문체부는 왜 징계하지도 않고 도려내지도 않고 눈감고 있습니까, 계속?

제보에 의하면 지난 1월 3선 연임을 하면서 9년째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남규 이사장, 현재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 직원들 석박사 학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놔물 아닙니까? 토요일 하루 수업하는데 수업 빠져도 출석 체크해 주고 학비도 거의 감면해 줬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이런 교수들한테 놔물 받고 병역비리 국제대회 눈감아 주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와 산하기관 직원들, 상명대 어떻게 다녔는지 전수조사해서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이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가짜 국제대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더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특혜받은 복무요원들요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끝인데 이것도 가짜 봉사로 속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현역 병사로 치면 군무이탈 밥 먹듯이 합니다. 최근 문체부가 경고한 게 무려 71건인데요.

다른 화면 또 띄워 주세요.

조남규, 또 그 예의 조남규였습니다. 대한무용협회 주최 전국무용신인경연대회에서 1위로 예술요원에 편입한 A 씨는 23년, 24년 한 예고에서 대낮에 강습한 사진을 밤에도 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해 가지고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서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문체부는 이의신청도 안 했습니다. 왜입니까? 조남규 교수니까 눈감아 준 겁니까?

이 꼴을 보면 1년 반 동안 현역 복무한 청년들 심정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2015년에는 현역 병사가 휴가 복귀 시간보다 27분, 딱 27분이 늦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BTS 멤버 전원도 현역 복무를 마친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문제들은 그대로 두시면 장관님이나 문체부, 예술요원 병역비리·군무이탈 공범이 되는 겁니다. 뇌물 받고 공범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겁니다, 학위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술요원 편입 대회 전부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종감 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이건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 같아요. 예술요원들의 대체 복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다가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1분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자료는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물한 명절선물 리스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2025년 1월 설 명절에만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

로 3건의 선물이 발송된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속만 국민의힘으로 돼 있고 받는 사람 이름은 공란으로 돼 있길래 이 세 분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이름을 주지를 않았어요. 제 보좌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이름을 받는 데 한 달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세 분의 이름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세 분이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적으로, 문체부장관의 설 선물은 우리 문체위 여야 국회의원님들 또 업무 협조상 예결위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이렇게 해 오던 것이 통상이었는데 이때만 세 분이 추가되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는 것이,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저한테,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한 달 넘게 그 자료를 안 줍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선물을줬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적 태도를 가져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우선 하는 것고요.

그래서 최희영 장관과 문체부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신자세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국회가, 아무리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저런 정말 합리적이고 주옥 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태도를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자료제출 요구 건에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 전체회의 때도 그렇고. 이건 장관님이 한번 차관이나 실국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서…… 자료를 안 내거나 늦추면 오해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은 문체부에서 꼭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시지요.

○박수현 위원 지난 우리 문체위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저희 문체위원회들,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체부의 여러 가지 문화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김건희 TV나 윤석열 뉴스 수준의 정권 나팔수가 되어서 무관중 황제 공연 관람, 계엄 반대 자막 삭제 지시 등을 벌였던 KTV 또 국가유산인 종묘를 대통령 실까지 동원해서 사적 지인과의 차담에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궁능유적본부장 등을 대동해서 출입이 제한된 영녕전까지 간 김건희 여사,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였습니다.

이 질문과 질타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체부의 답변을 돌아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을 질타하고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인 양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답변을 한 사람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태도, 그런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의 핵심과제 보고를 보면 창의, 창작, 새로운 시대의 대응 이러한 화려한 미사여구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정신자세를 고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체부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새로운 창작력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썩어 빠진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AI 시대에 아무리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내고 제안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 제가 짧게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질타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거짓말로 답변했던 문체부……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들,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각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란이 일어난 지난 12월 3일부터 대선 전까지 문체부에서 모두 124명의 인사를 단행해서 알박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윤석열의 위기 때마다 그것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정권을 잃는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노골적이고 필사적인 알박기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 14일과 구속된 1월 19일 사이에만 26명의 인사가 임명이 되었고 구속 다음 날인 1월 20일부터 지귀연 판사의 해괴한 법기술로 구속에서 풀려난 3월 7일 사이에 65명의 인사가 집중됐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알박기로 대선 전까지 무려 25명이나 추가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심각하게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그런 인사들이 태반이에요.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적됐던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또 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김명규 사장, 이 중에는 자기 이력서 딱 반 칸, A4지의 반 칸을 내고 임명된 인사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새로 임명된 장관에게 알박기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권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했던 장관이 함께 일해야 될 동료 직원들 정신 자세 고치지 않으면 안 되고 전문성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알박기로 배치된 이런 인사들과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업무현황에서 이야기했던 장관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 밤잠 잘 새 없이 이런 모든 많은 것들을 직접 챙기고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하신 부분 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장관이 보고한 대로 대한민국의 K-컬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 두려움에 우리는 더 K-컬처가 우수하고 세계적이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과대 포장하

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300조 시대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임기 5년 동안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장관이 세워야 될 리더십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정비하면서 그리고 국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정말 논의해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군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장관이 잘 알고 있는 분야, 그런 분야만 중점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귀를 더 여시기 바라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들은 문체부를 흔들거나 이재명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제대로 잘하자라고 하는 정말 수준 높은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과 조은희 위원님 하신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옳으신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서 국회와 문체위, 문체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런 일들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반 됐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업무 파악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아리랑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해외에 나가서 우리 전통문화 알리고 있는데 아시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취지가 매우 좋지요. 그래서 한번 안을 들여다보니까 학생 안전관리 부실, 허위 보고, 예산 부정 사용, 교장 특혜 출장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의원실이 확인을 해 봤는데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해외 홈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학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홈스테이 없었다, 일본만 했다, 미국 1건 했다, 미국 2건 했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했었고요. 진술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고 사고가 났을 시에 비상연락망 구축이라든지 보험 가입이라든지 사고 대응 체계가 전혀 마련이 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외국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부모 동의도 없이 머물렀다는 거 교육기관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고 학생 안전 또 학부모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학부모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홈스테이 실태 전수조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모든 해외 체험활동의 사전 동의, 과정 검증 그다음에 보험, 비상연락망 의무화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해외 문화교류 비용 구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 교사와 교장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자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문제인데 2018년 대비 2024년에 자부담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장은 연간 평균 세 차례 해외 교류에 동행을 하면서 매번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어요. 미국 노선 기준으로 보면 1회 항공료만 850만 원가량입니다.

장관님, 교직원 항공 등급을 원칙적으로 이코노미로 제한하고 학생 자부담 줄이는 구조 개편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되는 형태로 모든 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입니다.

2024년의 미국 문화교류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뉴저지와 워싱턴 호텔에서 10박을 숙박하였다’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워싱턴에서 5일간 홈스테이로 진행을 했어요. 숙박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비로 학생들이 전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이 비용을 호텔 10박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환급을 하지 않았다면 학생들 자부담 횡령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사기 쳐서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교장과 교사들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보고서에는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항공권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이 됐지요. 공식 보고서하고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참여 인원은 36명, 항공권은 왜 37장이 발권이 되었을까요? 행정 착오라고 보기 어렵울 것 같은데요. 공문서 허위 작성 내지는 예산 집행상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이런 허위 보고와 불일치 예산에 대해서 전수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 기재 확인될 경우에는 예산 환수와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매우 소중한 기회, 해외 문화교류로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기회인데요 특혜, 허위, 불투명, 안전 부재로 이게 얼룩진다면 또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부담과 위험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안전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기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다음 질의의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중국 내에서 한국 음원이 서비스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매우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2020년 걸 한번 보시면 중국 텐센트 산하에 아이리서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 미, 일본에 이어서 해외 음원으로는 세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조사를 중국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텐센트의 매출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 2020년 매출이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입니다. 텐센트뮤직 내 한국 음악 비중을 매우매우 보수적으로 5~10%만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발생 가능한 저작권료, 저작권료 통상 10%로 산정이 되는데요. 수백억에 이르는 그런 규모입니다.

장관님,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속이 돼 있고—물론 함저협도 있지만—신탁을 해서 저작권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음저협의 중국 해외 음원 저작권 징수 구조가 중국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음저협이 방송·공연 사용료 징수 외에 텐센트와 같은 음악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료의 징수·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중국 음저협은 과거에 텐센트하고 계약을 맺어 왔는데 2021년 이후에 갱신되지 않아서 계약이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징수를 못 한 거지요.

장관님, 결과적으로 한국 음저협이 중국 음저협으로부터 지난 10년간—2015년부터 24년까지인데—징수한 금액이 총 37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21년에는 중국 음저협이 텐센트와 계약을 유지하던 시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텐센트뮤직의 연 매출이 연 48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 6조 원 이상, 그런데 지금 저작권료가 고작 5억 80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음악산업이 성장해서 해외에서 성공하더라도 창작자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징수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태계 구축이 되겠습니까?

중국 음원 저작권 관련해서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따가 오후에 중인으로 참석한 창작자에게 직접 한번 듣고 질의를 그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여당이 되니까 야당 시절에 몰랐던 거 하나가 눈에 띄어요. 마이크하고 스피커 시스템은 엄청나게 좋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현 위원 될까?

○양문석 위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 배현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저작권에 대한 문제나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호 폭력에 대한 문제나 박수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K-컬처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지금 K-컬처가 꼭지가 아닐까, 최전성기가 아닐까 그리고 과

연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홍콩 느와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까 이러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오늘 회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케이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패션·뮤지컬·투어·무비, 수많은 K 자를 앞에 붙이면서 K-컬처 300조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저는 행정에 대한, 예술행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보면 연예 기획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연예 기획사가 사실상 최첨단의 창작과 K-컬처의 첨병들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육상처럼 그리고 모든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화학처럼, 모든 K-컬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행정 영역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서 버틸 때는 버티고 치고 갈 때는 치고 가고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이러한 부분인데, 미등록 기획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등록 기획사가 개인이 2200개 정도 그다음에 법인이 4500개 정도인데 여기에서 통계가 1인 기획사와 2인 이상 기획사 그다음에 10인 이상 기획사, 50인 이상 기획사, 분류가 없어요. 통계가 없어요. 이런 부분부터, 특히 1인 기획사의 미등록 현황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지요. 그런데 2인 이상의 기획사들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미등록 2인 이상 기획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스포츠신문을 보면 연예란에 많은 연예계의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문제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권·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 그다음에 노동계약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탄탄하게 이 부분들을 잡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문화부가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K-컬처 300조 시대를 향해서 대장정을 떠난 문화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등록업체에 대한 그동안의 문화부 대처는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동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지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에 만들어지고 벌써 11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문화부가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사의 등록)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문화부가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하면 바로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이나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교육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 그다음에 앞서 조은희 위원이 지적했던 병무행정 관련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교육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었고 십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수많은 비리와 부패와 그다음에 비인권적, 비노동적 개념들과 작태들이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문화부의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하려고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K-컬처 300조 정말 우리 꿈의 시대를 이 상황에서 날려 버릴 것인가, 안 그러면 더 탄탄히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수많은 관광지들이, 최근에 와서 폭삭 망한 관광지들이 솔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던 우리 시대의 방배동 카페골목 그다음에 신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전 성기 때 치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무너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면 이러한 행정에 대한 탄탄한 기초가 계속해서 점검되고 여기에 더 많은 고민들과 또 예산들이 투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장관께서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지적 너무 적절한 말씀입니다.

K-컬처를 앞으로 300조 이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주역 중의 하나가 기획사들입니다. 그런데 기획사 관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방만하게 되고 있었다라면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등록으로 돼 있는 부분도 빨리 다 등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가 제대로 행정영역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K-컬처 300조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로 다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K-컬처 300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동안, K-컬처 300조 시대에 대한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호겠습니다. 문체부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따져 보지 않고 300조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K-컬처를 얘기하려면 K-컬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그 펀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관련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정부가, 핵심적인 부처인 문체부가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K-콘텐츠의 핵심이 K-컬처를 이끌어가는 K-콘텐츠 펀드 투자 어떻게 유용하게 됐는지를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한번 그다음 거 보시지요.

최근 4년간 22년부터 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현황을 보면 2조 7000억 중에서 37% 정도만 투자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상누각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화계정 모태펀드를 보겠습니다.

죽 봐도 아직도 상당한 투자금이, 5900억 정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투자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아예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3500억 투자됐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부 출자가 850억, 자펀드가 380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머지 자펀드 선정 이런 것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650억 원을 배정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민간펀드까지 하면 9000억 정도 될 모양인데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은 투자금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뭘, 이렇게 300조까지 간다는 것은 밑바닥부터 뭐가 지금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투자금 정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혹 제기되어 왔지만 이런 콘텐츠 펀드가 부진했던 이유는 아마 그동안 했던 수익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그건 저조했다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 동안 청산된 K-콘텐츠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콘텐츠는 최대 -16%입니다. 평균 합치면 -8%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정부도 투자를 못 하고 민간은 더 불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300조 구호만 외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결국 그동안 정부 관행이 또 5년 동안 300조 얘기만 하다 5년 끝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산 늘려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 늘리겠지만 투자할 만한 민간 출자자 찾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데 민간 출자가 붙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콘텐츠 펀드 운용 실태부터 제대로 점검을 하고 발전시킬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금 운용 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상태에서 K-컬처 300조 운운, 아무리 외쳐도 결국 잠시 몇 달 정도, 1년 정도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뭔가 희망은 줄 수 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동안 이런 K-콘텐츠 펀드 운용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했고, 5년 내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개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300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면 K-컬처 300조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잠깐 희망은 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허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K-컬처 300조와 동시에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왔지만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K-컬처 300조, 방한 관광객 3000만’이 구호가 지금 이재명 정부 문화공약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선언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도 또다시 잘못되면 K-컬처 300조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서 정부가, 문체부가 저희한테 답변한 건 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외래객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편리한 여행 여건 조성 추진하겠다’, 다 추상적입니다. 이것 역대 아마 문체부 공무원들 항상 업무 보고 할 때 넣는 표현들입니다. 이 프레임 빠진 적이 있는지 보십시오. 항상 넣어 놨어요. 뭐가 있는지는 그다음부터 봐야 됩니다. 다 무슨 혁신전략이 어찌고 하는 구호만 난무해요. 아예 이번 전략에 4000만 시대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이지만 부산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까지 외국관광객이 아마 200만 3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23% 증가했습니다. 부산 관광객을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건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식관광, 해양콘텐츠 그리고 2023년에 도입된 외국인 전용 교통 관광패스,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관광혁신 3대 과제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나 모바일 결제 지원 등을 이미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앞서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런 비전만 얘기한다고 해서…… 실상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안 봐도 그런 겁니다. 또 이미 서울에 상당수 관광 수요가 몰려 있는 건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관광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없으니까 서울에 70%가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혁신의 3대 과제로……

1분만 더……

지자체,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개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추상적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방 맞춤형 지원전략과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구체적인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조금만 지나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정부 출범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먼저 관광에서 30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현상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3000만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지자체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떤 목표를 세우는 작업들을 빨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투자금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영화,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에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들에 대해서 정말 잘 운용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의 숫자가 좀 달라서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태펀드는 자펀드 결성부터 4년간 이렇게 나눠서 필요한 곳에 투자들을 분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양호한 속도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7% 말씀하신 그 기간도 5년에 걸쳐서 수익을 가지고 오는 펀드거든요, 특징

이. 그래서 그것을 1년 더 늘려서 19년부터 24년까지로 보면 수익률이 평균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달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해서 다음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이게 다 정부 제출 자료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분명한 추세 자체가 수익률이 낮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종감 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경기도 일산 이기현입니다.

국민에게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이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도 너무 힘들었던 윤석열 정권 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대 등원하고 두 번째 국감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리고 문체부가 그것에 동원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황제관람 건 그리고 종묘 유적의 사적 사용에 관련한 것들이 작년 국감의 주요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후속된 질의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황성운 기조실장 그리고 국민소통실장인 유병채 실장입니다. 그 당시는 국민소통실장이 아니고 문예실장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체부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조사를 저희들이 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힘없는 KTV에 대해서 공연 수의계약 그리고 청와대 장소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 보도자료 배포 및 위증 논란까지 있었던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왜 조사하지 않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공직자들의 자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틀었던 주요한 영상 중에 보면 전직 총리가 거짓말하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체부 간부들이 보여 줬던 태도는 밝혀지는 것만큼만 인정하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또 밝혀지면 거기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직자들이 내가 걸리면 인정하고 걸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것 또 이러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것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담당자들 조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국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자료집 세 권을 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시장 점유율 10%를 위한 전략, 그것 하나 제언으로 자료집을 냈고요. 새로운 예술교육의 모델 K-바우하우스와 일산에 대한 자료집 그리고 문화도시 일산 만들기, 콘셉트 디자인과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산이라는 지역을 두 번이나 넣었는데 이유는 알다시피 1기 신도시 5개 지역들이 문화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높은 문화적 수준의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K-콘텐츠와 AI 활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저희들이 문화부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콘텐츠산업 매출액 300조 시대, 수출액 50조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보면 약 2배, 수출액은 3배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임기 내 5년으로 나눠 보면 연 11% 정도의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달성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문화예산이 필요한데 문화예산이……

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17년 대비로 보면 문화재정으로 보면 전체 재정의 1.7%였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것은 1.3%입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1.42%였던 것이 1.07%로 오히려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예산 확정의 시간까지 저희 문체위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문체부도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저는 너무나 절실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K-콘텐츠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야가 수출액으로 보면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시장은 24년 매출액으로만 보면, 연간 수출액으로만 봐도 18억이 넘습니다. 18억 5212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억 달러입니다.

게임산업이 2등인데 그것 관련해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놨던 수도권 5만 석의 전용 공연장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해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특히 고양시에

서는 고양 아레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 전문 공연업체가 지금 응찰한 상태이고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공기가 4년씩이나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5만석 수도권 전문 공연장이라는 그런 거대한 목표를 세웠는데 저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이것이 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기존의 시설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기존의 음악시설 그리고 체육시설도 전문 공연장으로 개조하거나 전용 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기초예산에 대한 지원 강조하면 할수록,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통계를 한번 보면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각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등록 비율, 그러니까 관람에 대한 신청 비율로 보면 놀랍게도 서울·과천·청주에 국립미술관이 있는데 고양시가 예매 비율이 일등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수도권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고 문화적인 수준과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저는 문화예술 향유도 시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 지역에 적절한 시설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내에는 시설이 많은 것 같지만 수도권 내에 있는 인구의 비중으로 보면 일정하게는 서울 중심에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서울 인구가 93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입니다. 인천 인구가 300만을 넘어선 지 오래 됐고요. 그런데 시설들이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똑같이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말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활용 및 활용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시설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설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실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장관님, APEC 며칠 남았지요? 오늘로 16일 남았습니다. 지금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보안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안전에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9월 22일 날 경기용 실탄 유출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 발표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용 실탄입니다.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과 100여 정 이상의 사제 총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날 실업팀 감독 A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정부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함구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9월 22일 날 제가 알리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발표를 보고 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때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암살 및 저격설에 따른 기획수사 실시라고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 암살설에 대한 기획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수사 과정 속에서 첩보를 받아서 지금의 범인을 검거하게 된 건데요.

대선후보 암살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경기북부청이 혼자서 기획할 수 있는 수사입니까? 이것은 상부 지시가 없이는 북부청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수사고요. 그리고 이것 최소한 행안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었을 거고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도 보고가 되었다고 보는데 아예 모르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님 발표 전까지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체부에도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찰이 기획수사 과정에서 대한사격연맹에 방문한 날짜가 올해 6월 5일입니다. 6월 10일과 8월 21일에는 각 실탄마다 기록되어 있는 로트넘버를 경찰청에 넘겼고요. 그리고 대한사격연맹, 대한체육회로부터 이러한 사실 보고받은 게 없으시다라는 거지요, 장관님?

이것은 연맹과 체육회가 보고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와서 연맹에 가서 실탄 로트번호를 확인했고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데 관련 부서인 문체부에도 보고를 안 했고 대한체육회에도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경찰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연락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묻혔을 거다라고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 전에 보고가 안 됐는지는 경위를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실탄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탄이 아니라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기용 실탄은 첫 번째 관리는 대한사격연맹 그리고 상급 관리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관리 소홀인 겁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도 관리 소홀이면 당연히 문체부도 저는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은 지금 경찰 소관이 아니라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소

관입니다. 관리 부실인 겁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탄 사격장의 관리 책임은 각 시도의 경찰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용하는 것은 사격 선수들이고 사격연맹, 대한체육회, 문체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관리 부실인 거지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다음 자료 화면 좀 볼게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22구경 실탄 4만 7000여 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알려진 것만 4만 발 이상이고요. 저는 지금 추가 제보 또한 받은 상태라서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실탄이 그리고 총기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대량 유통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은 실탄이 유출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게 22구경 경기용 실탄입니다. 경기용 실탄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실탄이 아주 오래 전에 미국의 대통령 암살 때 사용했던 실탄과 똑같은 실탄입니다.

(탄피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비슷한 모양 없습니까? 탄두가 제거된 실탄의 탄피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인 입장에서 이 탄피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폭죽이 유통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폭죽, 일반 폭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이 폭죽에 들어 있는 화약을 여기에 넣고 탄두를 만들면 실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관리 부실이라는 거예요.

장관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저 같은, 누구나 다…… 아까 자료 화면 보시면 사격장 탄피 사진인 겁니다. 사격장 탄피를 누구나 가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진종오 위원 문제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 예…… 저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진종오 위원 이 실탄이 소구경·저반동의 실탄이기는 하지만 야외에서 사용을 했을 때 소리 또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 머리부터 가슴 부위까지 스위치 존이라고 하는데 스위치 존에 맞을 경우에는 바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탄입니다. 그래서 이 탄피 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문체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16일밖에 안 남았는데 최근 언론 보도 좀 많이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경주에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난투극도 벌였었고, 저는 APEC 기간 동안 다수의 관광객들도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분명히 안전사고 문제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는 이 실단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문체부에서 장관님이 기본적인 시스템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구상하여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 부탁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1분 더 드리세요.

○진종오 위원 체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진천선수촌 갔다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진천선수촌 가셔서 현장 시찰하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사진도 찍으셨지요. 지도자들 만나서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날 쇼트트랙 지도자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종오 위원 쇼트트랙만 만나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진종오 위원 선수촌 운영하는 근로자분들 대화도 안 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의료진과는 대화를 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랑은 따로 못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체육회 직원의 처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천선수촌 국가대표들을 운영하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좀 소통해서 처우 개선에 신경써야 되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의 역할인데, 그저 단순히 방문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선수들 격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지만 다음 방문 때는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실질적인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계원 위원님인데 조계원 위원님 주질의 7분을 중인신문에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중인신문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내란을 청산하는 국감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영역, 예외가 아닙니다. 문화예술 현장 후퇴됐었고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축소됐었고 검열이 부활하고 자리는 권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장관님, 내란 그림자를 거두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열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요. 올해 2건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것들이고요. 권력자 풍자나 계엄 비판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검열 관련해서 ‘이거 검열이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소통 문제다’ 이런 식으로 퉁치는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열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PPT 보시면 검열에 제대로 교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게 검열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에요. 검열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23년, 24년, 25년, 최근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에 허겁지겁 진행된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열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열이 예방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검열 이제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열 예방교육 정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기조를 반드시 이번에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리박스콜 문제 많았던 것 아시지요? 올해 7월 국회 교육위 리박스콜 청문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청문회에서도 리박스콜 관련 도서 2종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2종이 역사 왜곡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해당 도서가 일부 편집·왜곡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책들이 아직 전국 도서관에 있다는 겁니다. 초중고에 802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175곳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체부 산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도 8권이 비치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지금 열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리박스콜 청문회 이후로 해당 도서들 폐기하는 추세거든요. 문체부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폐기하거나 이용 제한을 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기에는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위원 지금 국립도서관이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역사 왜곡 도서가 열람 허용되고 있는 것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도 역사 왜곡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지침 필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출판, 도서, 도서관,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지침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급하게 열람 제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좀 볼 텐데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퇴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 드

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영화제작 지원, 각종 영화제 지원,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예산들 삭감됐고요. 전액 삭감된 사업도 2024년에 4개, 2025년에 5개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으로 애써서 일부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온전히 복원되지는 않았거든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축소는 곧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축소입니다. 이 중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영화 만들고 소비하는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사업인데 윤 정부에서 완전 삭감이 됐고요.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K-콘텐츠가 지속가능한 발전, 특히나 지역균형발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에 대한 복원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에서, 이전에도 제가 청문회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축소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고지원액이 줄어드니까 23년 대비 올해 95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8만 6212개 수업이 증발했습니다.

예술교육 이게 사회성 발달, 학업성취도 양면에서 모두 효과가 높다고 인정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체부랑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핑퐁하고 있는 과정 중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교육부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이 취지에서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장관님 인사하실 때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했다라고 하셨지요? 최근 폐지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노골적인 혐위·혐오·가짜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이 아닌 것은 수정을 할 거고요. 혐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사실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특히 관광 외교 이런 측면에서……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손솔 위원 가짜뉴스나 혐오 선동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SNS상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만큼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긴급하고 지금의 SNS, 인터넷 조건에 맞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대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최근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인데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모 씨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관광 전문기자가 쓴 기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불리한 기사는 이틀에 한번 꼴로 언중위에 제소를 하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걸로 봤을 때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관광공사 사장 공모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기사가 난 시점에는 공모가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공모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거명이 될 정도면 뒤에 굉장히 대단한 뒷배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 각종 선거 때마다 캠프에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뒷배는 뭐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으로 통한다, ‘만사현통’, 김현지 비서관을 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지전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하고도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이우종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문기 씨 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만났고 또 만난 사실 그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당시 김현지 보좌관한테 속속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민감한 정치적 리스크가 대장동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기 씨 유족을 만나고 그걸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 같으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운명공동체라고 추정되는 그런 최측근 인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에 본인이 사장에 내정됐다고 이런 설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공공기관장의 인사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장의 인사 기준은 뭐가 제일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관광공사는 직원이 600명이 넘고 1년 예산이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우종 이분이 관광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원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경력이라든지 역량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광의 ‘광’ 자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관광공사 사장을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직 거론…… 저는 후보라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문체비서관이 임명이 됐지요. 누구입니까, 문체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동연……

○**김승수 위원** 사전에, 이동연 문체비서관 임명 전에 장관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없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문체비서관은 문체부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협의도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통령의 인사 사안이기 때문에 저와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일찍부터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했었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의 문화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문화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플랫폼창동61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때 플랫폼창동61 사업을 이분이 주관을 했었는데 이 사업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를 선정했느냐, 본인이 한예종 교수 시절에 설립했던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적정성심사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본인이 좌장을 하고 있던 자문단의 위원들을 앉힌 겁니다. 자기 사람을 앉혀 가지고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이 사업의 운영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무려 7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건설비는 81억이고 운영비가 122억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본인이 또 이 사업에 관여하면서 예술총감독이라는 그런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영문과 출신이고 한예종에서의 강의 분야도 그렇고 전혀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총감독이라는 직위를 임의로 만들어서 월 200만 원씩 무려 1억 3400만 원을 자기가 받아서 챙긴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든 회사에 운영을 맡기면서 결국은 200억에 가까운 이 돈을, 국민 혈세를 특정 단체, 특정인한테 일감 몰아주고 이 사람들 배만 불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문체비서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태도로 문화예술계를 좌지우지하면 국민 혈세를 자기 사람들 일감 몰아주기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임명된 지가 며칠 안 돼서 저도 아직 정확히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문체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고 그러니까 당시 차관이 ‘배 째 드릴까요’ 이런 폭언을 들으면서도 베틴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짱을 가지고 그런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 출범한 지 꽤 지났습니다. 실국장 인사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실국장 인사는 대통령 인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 어떻게 실국장 인사가 대통령 인사 사항입니까? 장관이 국장 하나도 제대로 임명을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임명권자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아직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김승수 위원** 지금 실국장 하나하나까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면 편을 가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좌지우지하기 위해 가지고 장관들이 인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부처를 이끌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장관을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과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하여튼 부당한 인사, 부처의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외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배짱을 가지고 맞설 자신이 없으면 장관직을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소신을 가지고 수행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맞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가져야 될 자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 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굴러가네요.

관광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 박정하 위원 아까 답변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
- 박정하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아직……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진행 중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혹시 뭔가 진행 중인데 장관께서 지금 말씀 안 하시려고 개시 안 됐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공모…… 공식적인 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추천한 것들을 또 철회하고 하는 그 제반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언제 개시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쟁여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 박정하 위원 어디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실무진에게요.
- 박정하 위원 실무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박정하 위원 관광공사 사장 공모하는 절차는 문체부에서 진행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통령 임명직이어서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 박정하 위원 대통령실에서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같이 상의해서 하지만……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실무진하고 대통령실하고 상의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대충 그러면 장관님께서 내용 아시겠네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어떤 내용을요?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진행할 건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으시고 모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저 나름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알아보고도 있고 이렇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여쭤봤던 누구…… 이우종 씨? 여기도 추천 대상자예요? 거기는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거기는 저는 지금 처음……
- 박정하 위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추천한 사람이……
- 박정하 위원 장관님 두 달 반 정도 되셨다고 아까 양문석 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열심히 많이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두 달 반이

면 거의 다 파악되셨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업무에 대해서는……

○박정하 위원 다 파악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조금 이따가 여쭐게요.

부처의 실국장 인사를 장관께서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산에서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용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도해서 하지만 임명권자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앞서 정연숙 위원님 질의 보면 우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소신 쪽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치면 관광공사 사장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업무의 전문성이 있고……

○박정하 위원 어떤 전문성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관광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박정하 위원 관광에 대한 전문성, 꼭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이 한국의 관광을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감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정하 위원 마케팅, 관광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다음에 큰 조직이고 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이끌어 본 리더십 혹은 그런 예산을 관리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혹시 누가 되실지, 이후종이라는 분 전혀 모르신다 하니까 이분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시기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업무부터 얘기할게요.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 하면서 문화정책 관련해서 3시간 정도 얘기하셨더라고요. 혹시 장관님 배석하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니요.

○박정하 위원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건 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만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협의가 있거나 어제 토론 이후에 문

체부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문체부가 하는 일은 대통령실과 늘 같이 공유되고 있고……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셨으면, 주재를 하셨으면 어제 이런저런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는 어떤 의제를 올릴 거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지시를 했다라고 최소한 수석 내지는 비서관이 장관께 말씀도 주시고, 전화통화라도 협의하고 이런 거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어제는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전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실무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됐었다라는 거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문체부장관으로서 두 달 반 되셨는데 최대의 과제, 숙제 이런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박수현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K-컬처 300조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K-컬처 300조도 중요하지만 K-컬처 300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선 공약집에도,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K-컬처 300조,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장관님을 지명하는 소개를 할 때도 K-컬처 300조 시대에 새로운 CEO, 장관님 취임식에서도 K-컬처 300조 시대 열겠다, 공히 다 K-컬처 300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중요한 문화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하고는 직접 협의나 아니면 그 과정에 누군가가 연결한 고리가 전혀 없어요? 실무자끼리만 얘기하고 나면 K-컬처 300조가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평소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누구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와……

○박정하 위원 수석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어느 수석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사회수석님.

○박정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여.WebElement 문체비서관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문체비서관이 임명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전혀 접촉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임명된 후에 인사 한번 잠깐 나눈 적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대통령이 K-컬처 300조 말씀을 직접 하시고 장관께서도 그게 최대의 과

제고 어제 무려 대통령께서 3시간이나 내부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우리 미래라고 얘기하는 K-컬처 300조 얘기를 하는데 부처하고 완전히 이렇게 따로 놀아야 되나요? 그래서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별도로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제 나왔던 결과가 문화부하고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있는 거고 공히 다 같이 얘기 안 해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얘기 안 해도가 아니라 평소에 대통령님과 제가 나누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박정하 위원 그렇게 평소에 나누던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다 이해하고 있는……

○박정하 위원 마무리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이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가 이런 거 여쭤봤어요, 혹시 제안받을 때 용산의 누구랑 만났던 분 있나요. 그때 아무도 접촉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누구한테 제안받았느냐 그랬더니 이건 인사에 관한 얘기라 답변 못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일이 왜 생겨요? 3시간 동안이나 회의하신 내용을 문체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고 실국장 인사도 아까 뉴앙스는 내가 잘 모르겠고 관광공사 사장 임명도 나는 잘 모르겠고. 주체가 대통령실입니까, 문체부예요, 우리 문화 K-컬처 300조를 만들어 가는 게? 대통령실 혼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구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나만 묻고 이따 추가질의 여쭙겠습니다.

민형배 위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K-푸드도 K-컬처 300조에 들어간다’, 장관께서도 ‘맞아요’ 그랬어요. K-컬처 300조에 K-푸드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300조라고 하는 곳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목표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거는 연관 산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연관산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K-컬처 300조는 또 다른 무언가의 기준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따 여쭙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만 주세요.

○ 위원장 김교홍 뭔데요?

○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박정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실과 문화부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2차관이 지금 안 왔는데.....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왔습니다.

○ 양문석 위원 2차관이 아마 대통령실 회의에 간다고 안 왔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위원장 김교홍 국무회의.

○ 양문석 위원 그래서 어제의 K-컬처 300조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2차관이 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수시로 대통령하고 공유하고—K-컬처 300조 문화정책에 대해서—그리고 시민사회 수석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의 회의는 회의지만 그동안에 공유된 정책을 나눈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래서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대통령님의 회의이지 특별한 말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랑 늘 말씀 나누던 이야기들이거든요.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문체부 산하의 실국장들은 장관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다만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가 뜻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임명..... 제가 사람을 선택하고요.

○ 위원장 김교홍 인사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인사는 제가 하고.....

○ 위원장 김교홍 주도적으로 장관께서 하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통령 명의로 발표가.....

○ 위원장 김교홍 임명장이 나가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맞습니까? 그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서 적정한 사람을 골라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

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골라지면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임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오늘 김대현 2차관이 가진 거는 국무회의 때문에 간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국무회의고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제 한 분, 임오경 위원 남았는데 그 전에 혹시 또 질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김대현 2차관께서 도착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중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대현 차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 김교홍 김대현 차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순서로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임명되신 지 두 달 좀 넘으셨다고 하셨지요. 저희가 전 정부 장관 마지막 유인촌 장관은 국감 일주일 전엔가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국감을 지켜보면서 최희영 장관님도 당당하게 인사권의 칼을 휘두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뻔뻔스러워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박기 인사 관련에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대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세 사람 모두 어떠한 절차로 임명됐는지 장관님 궁금하시겠지만 이력서 반쪽짜리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이사는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

로 지적받았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GKL 본부장으로 보내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선고 직후 올 5월에 유인촌 장관의 알박기 인사로 재단 대표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의 연봉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1억 3000만 원, 김명규 재단 대표는 1억 2500만 원, 정용욱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1억 1900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기들이, 기관장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공비 카드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참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밖에서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어마무시한 연봉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연봉을 공개할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환공비 카드 하나도 없습니다. 후원금 요청하면서 그 돈으로 식사 좀 할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제대로 이력서 하나도 받지 않고 알박기 인사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관님? 업무 평가하고 있습니까? 업무 평가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매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관장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성과도 평가를 하고 해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평가해서 평가 등급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해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임오경 위원 국립문화공간재단의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15억 정도 됩니다.

○임오경 위원 15억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30억 원인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올해 예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지금 당인리에 건설 중인 문화공간, 문화발전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신은향 예술정책관님이 볼 때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시설 관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서 당인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 기관장에게 1억 3000만 원의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이분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신은향 예술정책관이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지요? 그러한 고액 연봉을 받지 않고도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현재 그 당인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소속기관이 아니라 법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할 별도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가 관리해도 될 텐데 위인설관형 자리라면 과감히 저는 없애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꼭 알박기 인사로 해서 고액 연봉까지 주어지면서 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탄핵 결과가 나온 후 5월입니다, 올해 5월. 알박기 인사를 하고 나가는 이런 뻔뻔스러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휘영 장관에게도 좀 뻔뻔스러워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 들어 보면 너무나 겸손하세요. 연기도 좀 하십시오, 전혀 모른 것처럼. 그래야지 그 자리는 살아남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장관님, 전 정부가 망가뜨린 문화·체육 분야 정책들을 수습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저쪽 현장 지금 계속 방문하고 계시고 간담회 하고 계시고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퇴보에 기여하고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에게 직접 제가 물어볼까 해요.

황성운 기조실장님, 김건희 KTV 황제공연 관람 사건 당시 문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임오경 위원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혈세 8000만 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국악 공연을 열고 꽃장식 깔고 앰뷸런스까지 불러서 했습니다.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

○임오경 위원 지금도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연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산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임오경 위원 예산 규모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 황제관람, 김건희 씨를 위한 황제공연이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당초에는 예술인 간담회도 기획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임오경 위원 결과적으로는 황제공연 관람으로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서요.

○임오경 위원 이 황제공연 관람이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나, 그 두 얼굴이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스러우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의 화면을 다시 한번 되돌리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유병채 소통정책실장, 작년 국감 당시 문체부가 KTV 보도자료까지 대신 내주며 그 황제관람을 감싸고 돌았지요? 김건희 씨를 위한 황제공연 관람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당시 그때 추진했던 기관장이랑 기획관의 의도가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임오경 위원 공영방송을 대통령 부부의 홍보 채널로 만든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놓고 대변인 역할까지 했어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KTV 김건희 공연관람 문체부 감사 6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3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감사가 질질 늘어지고 있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때 청와대 사용허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지만 아직……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이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관여·지시 여부는 문체부에 감사 권한도 없어서 아예 못했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까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체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감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제가 답변해 드려요? 답을 드려요?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문예실장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문체부 핵심 보직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공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고 해 주셔야지요. 보직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칼을 좀 휘두르십시오. 우리 공무원부터 정정당당히 조사받으시고 감사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게 지금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이 진짜 제대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끊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분들에게 징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된 건지 적절하게 정확하게 감사하셔서 잘못된 것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체부의 대다수 공직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가 전 정권 때 너무 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오늘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따 오후 질의 때 할 건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하나 하나씩 잘 따져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노관규 전라남도 순천시 시장, 이시하 대중가수,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 등 총 3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박상빈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장은 예정된 공식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은 9월 18일 부로 사무총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협회 관련 사건에 대한 본인 포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김강석 카지노 보안직원, 이명선 뉴스타파 기자,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조유솜 회사원 등 총 네 분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노관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노관규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시하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이시하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세요.

다음, 김승수 위원과 이기현 위원께서 신청하신 차정윤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차정윤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솔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강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강석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명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명선 예.

○ 위원장 김교홍 다음, 이기현 위원께서 신청하신 하신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하신아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께서 신청하신 조유솜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조유솜 예.

○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관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관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노관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증인 노관규

증인 이시하

증인 차정윤

○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십시오.

○ 양문석 위원 증인 신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서민규 선수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아영 코치의 아동학대 사건을 규명하고자 김아영 코치, 김상윤 대구빙상연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빙상연맹은 선수 권리 침해 사안임에도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

았고 징계시효 만료, 소급적용 범위의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심의 자체를 보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학대에 대해서 적절하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김아영 코치와 대구빙상연맹 김상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양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증인 신청 요구의 건을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실에서 10월 6일에 문체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에서 2025년 상반기 까지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및 학비 지원 대상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지 8일이나 지났는데요. 문체부는 뭐가 캤겨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조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건 장관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을 관계자에게 얘기해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서 주질의 때 조계원 위원께서는 주질의시간을 쓰지 않으시고 지금 증인 신문까지 해서 12분을 쓰시는데 조계원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노관규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관규 증인께서 본인이 2022년 6월 22일 날 올린 페이스북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순천 방문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순천시장으로서 순천 발전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로 하겠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시지요?

○증인 노관규 변함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관규 시장과 여러 가지 특혜의 검은 고리들이 발견되는 것을 느꼈고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들 그리고 또 여타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서 공정치 못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업자들의 배를 불리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화면에 보시면 유인촌 전 장관의 경우에는 노관규 시장이 요청한 원래 원도심

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되었던, 허석 시장 때 추진되었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순천만 습지센터로까지 확장하는데 그 사업 변경을 승인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더라고요. 2008년부터 인연이 있으셨지요?

○**증인 노관규** 잘 압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조수진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지요—노관규 시장님의 20년 지기로 확인됐고 그때 또 아까 페이스북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의 독심을 안고 방문했다 이런 인물이지요.

○**증인 노관규** 아마 더 오래됐을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도 순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전선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00억을 더 추가로 해서 노관규 시장을 위해서 경전선 우회를 약속을 하셨지요?

○**증인 노관규** 예산까지 약속한 적은 없고요. 잘 살펴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은 충분히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점래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점래 대표. 순천 매산고 동문이시지요?

○**증인 노관규** 거기가 100년이 넘은 학교라 동문들이 많습니다.

○**조계원 위원**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회사가 동해종합기술, 거기 대표고 한종산업개발에도 대표인데 정점래 대표가 있는 동해종합기술이 소위 양평고속도로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우회하는 그 설계를 맡았던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의 자회사가 한종산업개발인데 그 한종산업개발에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을, 337억짜리 위탁계약을 해 주셨어요.

○**증인 노관규** 전국적으로 아는 회사니까요.

○**조계원 위원** 다음은 한경아, 김건희 핵심 지인으로 알려진 한경아를 순천 정원박람회의 총감독으로 대행사가 선정되기 4개월 전에 내정을 해 가지고 실제 급여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증인 노관규** 핵심 측근인지는 잘 모릅니다.

○**조계원 위원** 월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월 1회 출근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다?

○**증인 노관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월 4회.

○**증인 노관규** 아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일주일에 250만 원 급여를 지급했더라고요.

○**증인 노관규** 인사위원회 인사 규정이 있거든요.

○**조계원 위원** 그리고 천공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 현재 순천의 각종 조형물과 관련해서 천공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증인 노관규** 천공이요?

○**조계원 위원** 예.

○**증인 노관규** 금시초문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경아와 관련해서, 이번에 순천 정원박람회 총감독을 맡았는데 김범수 씨, 김건희와 이상한 관계로 알려진 김범수 씨, 코바나컨텐츠 이사도 했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도 관여된 인물인데 이분이 또 순천까지 와서 사회를 보셨더라고요.

○증인 노관규 저희가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한경아 감독이, 총감독이 초청했겠지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2009년에도 시장을 하셨지요?

○증인 노관규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2008~2009년에도. 그때 순천 신대에 중흥건설에게 아파트 승인을 해 줬지요? 그때 개발…….

○증인 노관규 아파트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조계원 위원 아파트 승인 안 하셨다고요?

○증인 노관규 아니, 아파트는 경자청 소유이기 때문에 경자청이 승인권자지 순천시는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본인이 승인권자가 아니라고요?

○증인 노관규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선월지구도 중흥이 하고 있지요?

○증인 노관규 중흥은 아니고 거기 관련된 투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흥건설의 사업 승인이나 인가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노관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청 권한이니까요. 순천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증인 노관규 예,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청 소관이라고 하는데 시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노관규 몰랐습니다.

○조계원 위원 공무원들이 그것도 안 알려 줬어요?

○증인 노관규 아니, 모르지요, 저것은.

○조계원 위원 2006년 6월 20일에 보도된 자료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증인 노관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계원 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통해서 1만 1000세대가 개발이 됐어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대장동의 경우에는 5900세대 개발하면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증인 노관규 개발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계원 위원 경제자유구역 청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돼 있고, 땅값 초과상승분의 25%를 환수하게 돼 있는데 그 환수가 되지 않고 결국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 증인 노관규** 아닙니다. 재투자를 하는 것은 경자청 소관이고요.
- 조계원 위원** 경자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요.
- 증인 노관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것은……
- 조계원 위원** 시장이라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요!
- 증인 노관규** 아니, 그것은 12월 말에 이게 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증인, 우선 질의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 증인 노관규** 아니,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대들듯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 왼쪽 작품이 누구 작품인지,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 아시지요?
- 증인 노관규** 압니다.
- 조계원 위원** 이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한 정원이지요?
- 증인 노관규** 한 10년 넘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허물고 현재 오른쪽과 같은 이상한 조형물을 만들었지요?
- 증인 노관규** 지금까지 이상하다고는 얘기 들어 본 적 없습니다.
- 조계원 위원** 어떤 작가의 작품입니까?
- 증인 노관규**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작가가 노 작가라는 얘기가 있던 데요?
- 증인 노관규** 제 별명을 공무원들이 노 작가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 조계원 위원** 뭘로 보이나요?
- 증인 노관규** 예?
- 조계원 위원** 이게 뭘로 보이나요?
- 증인 노관규**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 조계원 위원**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본인 입으로 공무원들한테 이게 뭘로 보이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 증인 노관규** 물어봤습니다.
- 조계원 위원** 뭐라고들 하시나요?
- 증인 노관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애기궁뎅이’인데요. 떼어진 하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아기 궁뎅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이 조형물이 뜯금없고 보기 흉하고 외설적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노관규** 지금까지 2000만 명 가까이가 국가정원에 왔는데요, 그런 얘기는 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 시민들이 다 검증할 거고요.
- 황지해 작가가 어떤 분이냐면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정원 작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

런 분의 작품…… 본인이 말하기를 이 작품 ‘갯지렁이 다니는 길’이 철거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원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원은 시간과 자연이 만드는 미학이다’. 10년이 지났다는데 앞으로 100년 지나면 더욱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전혀 작가도 안 알려진, 이상한 외설스러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증인 노관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황지해 작가 저도 잘 압니다마는 황지해 작가에게 저희들이 한 9000여 평의 공간을 줬는데 10년 동안 가장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에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도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것은 황지해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동의라고요? 시청 공무원이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름을 빼요’, 그 작품 작가의 이름을 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증인 노관규**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거 뭐지요?

○**증인 노관규** 강의중 선생이 만들었던 꿈의 다리입니다.

○**조계원 위원** 예, 꿈의 다리. 전 세계, 순천을 포함해서 전 세계 14만 5000여 명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조각 작품을 받아서 그걸 타일로 만들어서 꿈의 다리에 비치했지요?

○**증인 노관규** 예, 테라코타로 구워진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이 작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증인 노관규** 지금은 철거되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철거했습니까?

○**증인 노관규** 색이 바래고 시간이 오래돼서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저 타일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작품들이에요. 확대를 해 봐도 아이들의 꿈과 그림들이 다 있는 작품들이에요. 저 작품을 철거했고……

○**증인 노관규**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존해서 훨씬 더 잘 보이게 안에 전시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으로 보존되면 다인가요?

○**증인 노관규** 아닙니다. 자기 작품을 찾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건 찾기도 어렵습니다. 색도 바래 가지고 누구 작품인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걸 영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훨씬 더 찾기가 쉽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2003년 10월 9일 날 꿈의 다리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선명하고 깨끗했습니다.

○**증인 노관규** 2003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일 아닙니까?

○**조계원 위원** 아, 2023년 정원박람회 있던 해요.

○**증인 노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철거되기 한 달 전쯤이지요, 10월 9일이니까. 그때도 선명했고요. 그럼 남대문이 없어지고 디지털 기록으로 남대문 사진이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증인 노관규 같은 동급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루브르 사진은…… 왜 갑니까,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 사진 얼마든지 디지털로 볼 수 있는데 왜 갑니까?

○증인 노관규 위원님의 찾아가신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계원 위원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타일을 없앤 것 아닙니까?

○증인 노관규 그건 동의를 구하고 지금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작품은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브릿지 만들었지요?

○증인 노관규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 이름이.

○조계원 위원 천공의 조언을 받았습니까?

○증인 노관규 천공 그 사람 제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계원 위원 오늘 저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했던 말들은 나중에 위증의 혐의가 있는 것은 고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 노관규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지요.

○조계원 위원 또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다음 다리는 순천……

○위원장 김교홍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시간이 12분 끝났는데 이어서……

○조계원 위원 예, 계속해서 5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5분이 아니고 3분이지요, 3분.

○조계원 위원 예, 3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4분을 드릴게요.

○조계원 위원 12분 다 지났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12분 지났어요. 4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 3분에 플러스 1분 대부분 위원님들이 쓰시니까 합리적 방안으로 4분.

○조계원 위원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순천시민의 평화의 염원을 담은 도보 다리였지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노관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만들어진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천시장으로 취임한 후 5개월 만에 철거했지요?

○증인 노관규 예, 정원에는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계원 위원 도보 다리에는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았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 철조망까지 썩 가져와서 재현했던 시설물인데 철거해 버렸지요?

○증인 노관규 예, 철거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윤석열과 김건희가 좋아했겠네요.

○증인 노관규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이요.

546억 원을 들인 저류시설 알고 계시지요?

○증인 노관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동천 그린아일랜드 만드셨지요?

○증인 노관규 만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동천 그린아일랜드를 만들 때 잔디밭으로 만든 거지요?

○증인 노관규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류지의 기능이 뛅니까?

○증인 노관규 저 저류지는 그대로 다 기능을 유지합니다.

○조계원 위원 홍수로부터 범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저류지고 그 저류지를 위해서 만든 도로를 저렇게 없애 버렸지요? 잔디로 덮었지요?

○증인 노관규 저류지를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77cm의 흙토를, 토사를 더 추가로 덮어서 저류지 기능을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노관규 저것은 감사에서도, 우리가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조계원 위원 감사 지적됐지요? 거기서 지적됐잖아요!

○증인 노관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훈련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원상복구 안 했습니까, 도에서 지적받고도?

○증인 노관규 원상복구 명령은 없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순천시민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증인 노관규 저거 안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안전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니요? 집중호우가 생겨서 만약에 과거와 같은 순천 대홍수가 발생해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만든 저류지 아닙니까.

○증인 노관규 그 저류지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증인 노관규 저 저류지도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넘어가세요.

경전선 우회 약속은 안 지켜졌지요, 원희룡 장관의?

다음 화면.

○증인 노관규 지금 100억을 들여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거 K-디즈니 순천을 주창하면서 만식이, 순심이, 순식이 캐릭터 만들었네요.

○증인 노관규 저거 AI가 만든 겁니다.

○조계원 위원 AI 캐릭터지요?

○증인 노관규 예.

○조계원 위원 원본 사진 구할 수 있나요?

○증인 노관규 원본 사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조계원 위원 배낭 멘 사진은 노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고 순심이 사진은 순천 국장이

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본을 확인해서 한번 재현할 수 있나요?

○**증인 노관규** 아이고 위원님,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이것은 도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순천에서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사 지적받았는데 그거 재심 신청했다가 기각됐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했습니까, 추가 비용 들어간 것?

○**증인 노관규** 어떤 거요?

○**조계원 위원** 캐릭터 만들면서 6억 비용이 과다해 가지고 지적받았으니까……

○**증인 노관규** 저 추가 비용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했던 회사하고 거기 하청 받았던 회사하고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순천시가 뉴스타파, 김건희 정부예산 개입 기사 허위 보도라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지요?

○**증인 노관규** 제소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명선 참고인님 대기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뉴스타파 이명선 참고인님.

○**참고인 이명선** 예, 뉴스타파 이명선입니다.

○**조계원 위원** 노관규 시장의 제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이명선** 저는 노관규 시장이 발언한 그대로 보도했고 그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했더니 예산이 실제로 증액된 게 맞아서 보도를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순천시장의 언론중재신청서를 보면 본인이 한 발언, 김건희 여사에게 그 자리에서 지역 현황과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 '본인이 쟁기겠다, 대통령이 잊지 않게' 그렇게 얘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부인하는 내용을 언론중재신청서에 담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만식이, 순심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재심을 신청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문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에 근거하여 실제 장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견적서·내역서 등의 허위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부를 계약 상대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통보하도록 변경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경정 계……

○증인 노관규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이 캐릭터 제작에 관련한 직원들은 다 경징계 조치가 됐어요, 일부는 중징계 됐고.

○증인 노관규 그게 아마 법률적으로……

○조계원 위원 그걸 부인하시는 겁니까? 거짓말하시고 계시잖아요.

○증인 노관규 아니요, 거짓말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보고받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위원장 김교홍 자, 이제 조계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증인 노관규 그리고 예산 문제도 얘기하는데, 시장이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셨는데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돌팔매질하면 맞아야지요.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제 추가질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김건희는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우수상을 받았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김건희를 노관규 시장은 전문가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다 혀위 경력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에 김건희 예산이 실제로 김건희가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화해서 실현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다음 화면—김선순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2000억까지 늘렸다, 노관규 시장 입으로 한 말입니다.

○증인 노관규 저거 짜깁기한 편집 영상입니다.

○조계원 위원 짜깁기 아니고요.

다음 화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박보균 장관한테 전화까지 했고 8월 24일 날 결국 노관규 시장의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된 예산이 반영됐고 나중에 2000억이라고 한 부분은 김건희·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무너져서 받지를 못하게 됐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증인 노관규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계원 위원 순천부 읍성이 300억 넘게 들여서 조성된 건조물이지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만든다면서 깨뜨렸어요.

지금 공사 중이지요?

○증인 노관규 공사 중입니다.

○조계원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까지 수상했고 국비가 70억 넘게 들어갔고 전체 예산 300억이 훨씬 넘게 들어간, 그리고 순천시민에 이순신 장군의 공지와 자부심까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조형물인데 왜 이걸 없앴습니까?

○**증인 노관규** 그런 정도의 역사성과 예술성과 효용성이 있었으면 저걸 철거할 필요가 없었지요.

○**조계원 위원** 그건 노관규 시장의 본인 개인의 판단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예산이 들어간 시설물들을 저렇게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로 짓고, 이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노관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마음대로 안…… 다 어디에 보고했어요?

○**증인 노관규**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어디에 보고했나요?

○**증인 노관규** 아니, 순천시의회도 있고 저거 감시할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계원 위원** 어디다 보고해서 했나요?

다음.

한경아 감독, 김건희의 죄측근 지인이라는 거 모르고 계셨다고요?

○**증인 노관규** 모릅니다. 저는 한경아 감독이 선출되는 걸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저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는……

○**조계원 위원** 박람회 대행사 지정 4개월 전에 무려 임명·선임을 했어요.

○**증인 노관규** 당연하게 해야지요. 지금 여수박람회도 미리 선정하지 않습니까?

○**조계원 위원** 박람회 대행사 지정에 한경아가 관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노관규** 대행사 지정에 한경아가 왜 관여를 합니까?

○**조계원 위원** 거기 총감독이었잖아요.

○**증인 노관규** 감독을 선출하는 것과 대행사가 선임되는 건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그건 뭔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그렇게 한 거지요?

○**증인 노관규** 왜냐하면 감독은 대행사하고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장관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원래 순천 원도심의 재건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순천을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허석 시장이 추진했고 문체부 승인받은 프로젝트였고 그랬는데 노관규 시장이 거기서부터 3.6km 이상 떨어진 순천만습지 센터까지 확장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러스터의 원래 개념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하나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원도심하고 순천만정원하고 그렇게 묶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묶는 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 부분은 제가……

○조계원 위원 저것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가 있었다는데 그 사실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오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순천부 남문 국비가 70억이 넘게 거기에 투여가 됐어요. 그것조차 허물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위해서 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타당한지 조사를 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앵커기업으로 순천만습지센터에 1~3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순천시는 여수MBC하고 밀약을 통해서……

○위원장 김교홍 조계원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밀약을 통해서 사실상 앵커기업도 아니고…… 오히려 계약서상에, MOU에서 한 걸 보면 ‘애니메이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환을 지원하겠다’, 즉 애니메이션 사업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공영방송 여수MBC를 순천MBC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올바른지 이것도 조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인 노관규 위원장님, 마지막 한말씀만……

○위원장 김교홍 아니, 내가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들으면서……

○증인 노관규 예.

○위원장 김교홍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했다고 아까 그랬지요?

○증인 노관규 인허가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러면 순천시하고 경자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증인 노관규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하세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노관규 우리는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순천시의 공무원들이 경자청에 가 있지요?

○증인 노관규 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명도 안 가 있어요?

○증인 노관규 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거기는 순수하게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합니까?

○증인 노관규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증인 노관규 마지막에 한 말씀……

○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장관님에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관규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및 순천의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사업 관련된 문체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5개월 만에 철거를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사업에 문체부 예산이 반영되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10년간 문체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증인 노관규 위원님, 이 예산하고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거 전화해서 된 거 아닙니다.

○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노관규 너무하십니다.

○ 조계원 위원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 임오경 위원 증인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증인은 앉아 주세요.

○ 증인 노관규 아니,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 조계원 위원 들어가세요.

○ 임오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밝혀지니까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고 해서 근거가 없어지거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조계원 위원 지금 행태를 보면 스스로 순천의 윤석열이 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교홍 조용하십시오.

○ 증인 노관규 제가 왜 윤석열입니까?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장관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에 보태서 현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에 서비스되는 음원으로부터 막대한 저작권료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음저협이 디지털 음원 전송 사업자들에게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작가들은 음저협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서도 해외 디지털 전송 음원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퍼블리셔들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퍼블리셔 업체들이 중국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료를 회수를 해 왔는데 아티스트들에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징수·분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시하 증인님.

○**증인 이시하** 예.

○**김재원 위원** 이시하 이사님, 작가이시면서 음악저작권협회 이사이시지요?

○**증인 이시하** 예, 현재 저작권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 창작자들이, 이렇게 중국 음원 저작권 징수 구조의 불투명성과 한계 때문에 아티스트들에게 저작권료가 정당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 맞습니까?

○**증인 이시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우리 음악 작가들은 중국의 기업들이나 중국의 음악 사용자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사실 중국의 대기업인 텐센트 같은 곳은 전부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텐센트 쪽에 조사하기를 제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물어보게 되었고 텐센트가 모 출판사에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 출판사에다가 저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저작권료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일정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텐센트는 누군가에게 저작권료를 주고 있었고 그걸 받아간 사람은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김재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계약 만료로 인해서 징수 권한도 없는 대리 중개업자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시하 이사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른 작가들도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증인 이시하** 예, 그럴 가능성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일을 알렸으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서 제가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히트곡을 가진 작가님들 100명 이상을 만났고요. 그 백 분에게 일일이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확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확인서고요. 확인서의 내용이 거의 다 일관됩니다. 내가 히트곡을 가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에서 제대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들과도 계약을 했으나 그들로부터도 소액만을 분배받았거나 거의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퍼블리셔도 많다는 것을 제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중국 저작권료를 받아 주겠다고 사설 퍼블리셔가 난립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한국의 유통사들과 중국의 텐센트를 연결해 주겠다는 중간 유통사에서 대단히 많은 돈을 편취해 갔다는 증언도 확보를 한바 이 부분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주시지요.

장관님, 최근에 음저협이 텐센트와의 회담을 통해서 중국 내 합법적 경로 외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작권법 제108조(감독) 규정을 통해서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들에게 업무점검 실시하시겠습니까? 중국 저작권료 징수 구조에 허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부당이익을 도모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중개업자들 대상으로 즉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중국의 사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중국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북미·남미·인도·중동·유럽·동남아시아, 저 역시 저작권자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한 30여 년 가까이 이런 곳에서 저작권료 항목으로 징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실태 확인하시고 시정명령은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요. 업무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문화산업이 아무리 300조 시대를 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저작권료 징수 등 합당한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하나도 없겠지요. 민간 영역에 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국제 공조와 오피셜한 징수·분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탁단체들 간의 이렇게 단순한 신뢰 구조에만 기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와 주신 이시하 이사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시하 제가 중국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이 한국의 제작 유통사들에게 인접권료, 그러니까 음원료입니다. 그걸 지급할 때 저작권료도 붙여서 주었다는 증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을 올리자면 중국 음악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 한국 음악작가들의 20년이 넘은 염원입니다. 여기 확인서 안에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저작권료를 한국의 작가들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사용료도 한국의 작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작가들의 삶이 비로소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산업 300조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웹툰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웹툰 시장을 한국에서는 뒤집힌 압정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정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연재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계약 감수는 많은 지망생들과 신인 작가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점에 오른 스타 작가들도 언제든지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계약 구조는 그 자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국감 때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가 나오셔서 21대 국회이기는 하지만 약속 하셨다고 합니다.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1년 국감 이후에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 지켜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하신아 2021년 김준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여기서 절대 불공정이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절대 불공정한 계약이 없다고 단언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당선된 신인 작가한테, 공모전은 연재를 전제로 공모전을 열어 놓고 당선된 신인 작가한테 돈도 안 주고 계약도 안 해 주고 2년 동안 일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희망고문만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는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6종 이상을 내미는데 공동저작자로 네이버 웹툰을 올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방송 출연을 해도 돈을 떼어 가는 그런 계약들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계약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2025년 올해도 우리 노조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사례들 네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는데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연재 제의받고 원고 제출했는데 계속 미계약 상태인 겁니다, 긴 시간. 그리고 미계약, 고료가 미지급된 상태로 2년간 작업했고 2차 저작권 투자 체결 후에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2차 저작권의 경우에는 2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MG를 받기도 합니다. 수년째 금전 대가 없이 일하고 있는 작가들도 꽤 많습니다.

작가들, 이러한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하신아 계약을 거부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이기현 위원 예.

○참고인 하신아 웹툰 판에서 네이버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천국 같은 그런 곳이지요. 게다가 계약서가 나오는 시점은 신인 작가들이 공모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1년, 2년 정도 너무 많은 노력을 한 시점입니다. 매몰비용이 너무 큰 거지요. 너무 강하고 압도적이고 모두가 동경하는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데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죽으라는 소

리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런 식으로 청년 작가들을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정윤 이사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방금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것들로 공모전 당선자들에게 연재 계약 없이 무급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네이버 웹툰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이버 웹툰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상생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차정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혹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사례들이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방송국의 경우에도 드라마 작가 공모를 실시하면 공모전 요강을 발표할 때부터 당선 후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인턴 기간에 기한을 둔다라는 안내를 확실하게 공지합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에 방송작가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증인 차정윤** 저희 지금 공모전 요강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공정한 처우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인 작가들의 무급노동 관행과 불명확한 계약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한국의 웹툰산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웹툰작가 단체들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신인 작가 공정 데뷔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협의체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분만 더 주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놓쳤는데 문화생태계의 기본은 기초 산업입니다. 기초산업 중에 만화산업도 웹툰산업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웹툰산업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한국 콘텐츠산업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산업의 기초에 웹툰산업이 있는데 웹툰산업이 이렇게 특히 대기업 플랫폼에 의해서 독점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지적되었고 그때는 오너가 나오셔서 약속했지만 현장에 있는 젊은 청년작가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시정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웹툰 창작 작가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웹툰 만화는 저희 K-콘텐츠의 핵심이고 또 원천 IP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우리 밸류체인이 계속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의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실태조사하고 이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실태조사 꼭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연예인 또는 유튜버 이런……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의 어쨌든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된 건 오늘내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도 벌써 두 분의 아티스트가 있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과 또 가수 이시원 씨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아이들이 저희 어릴 때 속셈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도 어릴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학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좀 알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학원만 보니까 2300여 곳이 돼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연기 가르치는 곳이 360여 곳, 댄스 가르치는 곳이 1054곳, 실용음악만 해도 800곳 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연예인이 되는 길이 굉장히 꿈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연예인 되고자 할 때 보통 우리가 연습생이라고 해서 전속 기획사에 전속 연예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비 연예인으로. 이때 돈을 요구한다. 이것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배현진 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 제가 성장할 때, 그 옛날에도 이것은 사기だ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횡행하고 있다, 아직도.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처에서 관장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문체부에서 소홀하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체부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있지요? 여기에는 대중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경비나 교육비용을 기획사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기획사 부담으로 아예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1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법 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대중문화……

○배현진 위원 예술산업법 안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권고를 하고 있지요? 실제 여기에 따라서 기획사들의 90% 이상이 그 계약을 할 때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비용을 요구한다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맞습니다, 1차관님.

차관님 설명해 주신 대로 콘텐츠진흥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 ‘즉시 거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현실을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꿈을 키워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조차도 모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계약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에 ‘문체부’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어느 기획사를 자처하는 아이들 댄스 가르치고 연기 가르치는 학원의 계약서예요. 이거 사기 계약서거든요. 학원인데요 학원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기획사인 것처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선납을 하도록 계약서에 작성을 해 놓고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지금 기재를 해 놨어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보면서……

○배현진 위원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계약의 사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사기친 거지요, 이 업자가.

여기에는 관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학부모께서 나오셨습니다. 조유솜 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섯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이 학원 보내는데 처음에 여기 업자 어떻게 접촉하시게 됐어요?

○참고인 조유솜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광고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배현진 위원 SNS 광고를 통해……

○참고인 조유솜 예. 거기에서 아이 이름과 성별 그다음에 나이 이렇게 해서 보호자 이름 이런 것을 올리게 되면 전화가 오는데 저도 장난삼아 한 번 올렸던 건데 끈질기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번 와서 거부를 했는데 세 번, 네 번……

○배현진 위원 인적사항을 냈더니 계속해서 왔습니까?

○참고인 조유솜 예, 같은 곳에서요.

○배현진 위원 그래서 관심 있어서 가셨고요.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이지요?

○참고인 조유솜 지금 아홉 살입니다.

○배현진 위원 아홉 살 자녀를 데리고 여기 가셨고.

처음에 갔을 때,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간판이나 이런 데 학원으로 돼 있던가요?

○참고인 조유솜 아니요.

○배현진 위원 그러면 뭐라고 써 있던가요?

○참고인 조유솜 엔터테인먼트라고……

○**배현진 위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조유솜**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쓰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참고인 조유솜** 예. 계약을 해야 그런 쪽으로……

○**배현진 위원** 쓸 수 있다?

○**참고인 조유솜** 예, 오디션 기회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현진 위원** 혹시 소속된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조유솜** 지금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의 애들을 수를 어제 봤는데 연령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560명 정도……

○**배현진 위원** 590명 정도 됩니까?

○**참고인 조유솜** 560명 정도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60명이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에 계약을 해 주겠다면서 선납금을 요구했어요. 얼마 정도 요구했나요?

○**참고인 조유솜** 처음에 계약할 때만 2년 계약으로 해서 150만 원을 무조건 내게 되어 있고……

○**배현진 위원** 처음이라면…… 더 있지요, 그러면?

○**참고인 조유솜** 예.

○**배현진 위원** 토클 얼마인가요?

○**참고인 조유솜** 그리고 한국 아역협회라는 어떤 협회, 단체까지 가입을 하게 해서 그 것은 또 추가로 54만 원을 더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역협회는 1년마다 갱신해야 돼서 추가로 또 비용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해 준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배현진 위원** 2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손해를 보신 거지요?

○**참고인 조유솜** 지금 가입비만 204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오후 질의를 제가 좀 당겨서 해도 될까요?

○**참고인 조유솜** 특강비 그리고 자체 패션쇼 그런 거……

○**배현진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인가요? 제가 시간이 좀 넉넉지 않아서……

○**참고인 조유솜** 전체적으로 7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현진 위원** 750만 원 정도요?

○**참고인 조유솜** 예.

○**배현진 위원** 이것 환불 요구하셨지요? 환불 요구했더니 제가 말씀 듣기로는 금품 갈취, 명예훼손이라며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조유솜** 예,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배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학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이들 꿈 이루어 주려다가 온 가족이 지금 명들게 돼 있거든요. 이것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관님과 1차관님 아래 어디서 관장해야 하냐? 콘텐츠국이지요. 맞습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대중문화산업과까지 있지요? 여기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30년…… 제가 나이도 많은데 저 어릴 때 있었던 이 사기 피해가 벼젓이 지금도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300조 K-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장관님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부분 같고요. 이것을 우리 문체부가 항상 사찰하고 잡아들이는 기관은 아니지만 아이들 문제에 관해서,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될 분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또 가능성 있는 새싹들의 뿌리를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위원 지난 공청회 때 장관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건법이라는 것을 이름 명명해서 발의를 하고 아이들의 소득을 일정 신탁해서 보호하도록 해 주자라는 공청회를 얼마 전에 열었지요. 거기에 우리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이것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애꿎은 학부모,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금품 갈취니 명예훼손이니 마치 가해자가 된 것처럼 거꾸로 겁먹고 피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가 오늘 그 과까지 다 지목을 해 드렸잖아요. 조치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저에게 어떻게 할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외에도 문자를 뿐이거나 아니면 미등록업체인 상태에서 명함을 주고 거리에서 캐스팅하는 등의 그런 아주 구질구질한 방식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실태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가수 이시하 님의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장관님과 차관님의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도 매우 놀라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김강석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카지노 사업장 노동환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인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김강석 저는 카지노 보안팀에서 13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카지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안팀 업무로서는 직원, 시설, 고객, 여러 가지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신화월드 카지노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카지노 현장이 우리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보셨다시피 카지노 노동자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담배 연기를 맡고 있고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온갖 위협 속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지역 카지노 사업장의 불법 흡연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솔 위원 최근에 제주 드림 카지노에서 보안요원 3명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카지노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서비스연맹과 공동으로 카지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노출되어 있고요. 근무일 중에 10일 이상을 반말과 비하 발언, 욕설과 폭언을 듣는다 이런 응답이 절반이 넘고 성추행도 많습니다. 월 1회 이상 겪는다는 게 22.7% 이렇게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대처인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도 공기업인 GKL에서는 절반가량은 조치를 취하는데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드림타워 카지노나 참고인이 속한 신화월드 카지노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런 응답이 80,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참고인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 김강석 카지노는 흔히 아시다시피 도박하는 사업장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외국 고객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우리 노동자들을 일단 동등하게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할 뿐이지 결국 돈을 가져오는 고객 중심의 경영 때문에 저희 노동자들이 온갖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폭언에서는 직원들을 ‘죽이겠다’, ‘어디 사냐’,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협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적인 부분에서는 흡연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을 때는 유리 재떨이를 바로 얼굴에 던지거나 물병을 온몸에 던져서 직원들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칩스, 카드 등을 직원들한테 불만을 표시하면서 던지면서 직원들한테 ‘네가 땅에서 주워서 갖다 줘라’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은 이런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자신들의 돈을 잃는다는 그 상황 때문에 분노로써 제지를,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건을 부순다든지 직원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때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이번의 사건 발생과 동일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도 많습니다. 성희롱 사례로는 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여성 직원

들 중 마음에 드는 직원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못생겼다’, ‘이쁘다’, ‘어디 사냐’, ‘내가 이 방에서 자고 있으니 올라와라’ 등 온갖 성희롱 발언과 행동으로서는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지 흥분한다면서 그 앞에서 수치 발언을 하면서 여성 직원들이 수치심과 이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방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마련하는 것보다 실제로 법적으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지금 카지노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흡연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제가 GKL이랑 신화월드에 다녀왔습니다. GKL은 흡연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교홍 3분?

○손솔 위원 예, 3분 더 쓰겠습니다.

담배 연기가 계속해서 나는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신화월드 카지노나 드림타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매일 4시간씩 고객의 담배 연기를 마시고 있고 절반 이상이 메스꺼움, 두통,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현장의 상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김강석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환경 속에서는 협의를 진행하지만 형식적인 조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은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있고 회사는 고객을 중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맞춤의 흡연 구역 설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근무 중에도 구토와 메스꺼움을 참지 못해서 휴식을 요청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많은 걱정들 때문에 출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노동자들이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게 돼도 담배 냄새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카지노 노동자들 전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마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문체위에서 명확하게 법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줘서 회사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솔 위원 이게 금연구역인데 흡연이 실제로 되고 있는 상황이 방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딜러 이런 분들은 몇 시간씩 담배 연기를 죄고 있고, 이것은 원래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는 문제여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해서 저희가 감정노동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23년에 문체부에서 카지노업 종사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설문에서 더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23년에 그 연구 했을 때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치료비 지원하겠다 이런 게 제시가 됐었는데 시행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들은 일단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카지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폭언 그리고 흡연 이런 문제에 다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공기업 GKL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GKL 같

은 경우에는 흡연구역 따로 하고 있고 금연구역에서는 금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액션 아웃(one action out) 제도라고 해서 폭행, 성희롱 행위 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 정도까지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책 마련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실지 장관님 답변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이렇게 직접 손수 조사해 주시고 정책 제안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폭언, 욕설, 불법 흡연, 감정노동에 대한 침해 이런 수많은 안전과 인권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일터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가이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3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또다시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가이드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문체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보호막으로 도움이 되니까 꼭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차정윤 중인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도 네이버 웹툰과 신인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웹툰 계약상의 과도한 수수료 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웹툰 상생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2022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또 14개의 만화·웹툰계가 모여 가지고 상생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것들에 있습니다. 매출 관련 정보를 적정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또 수익배분 규정을 굉장히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여러 가지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저런 협약들이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인 차정윤 상생협의체 이후에 문체부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준용해서 25회 연

재 이후 1회 휴재권을 반영했고 또 CP사 소속 작가더라도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본인의 수익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다 반영을 해 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부 개선된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불공정 계약이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수익배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이 월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무려 수익액의 90%를 네이버웹툰이 가져갑니다. 작가는 겨우 10%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수익배분만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저작재산권의 20%를 강제적으로 양도하도록 돼 있으며 또 더 문제인 것은 양도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더 큰 문제들은 뭐냐 하면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그러니까 작가들의 개인활동, 방송, 광고, 강연 이런 것들까지도 플랫폼사에 그러니까 대리중개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속 계약서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부속 계약에 일반 기본 계약에 있는 것들 이외에 여러 가지 작가들을 옥죄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그 부속 계약이 일반 표준 계약보다 우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 계약에 무한정 갑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현장의 내용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께서는 특히 네이버에 근무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네이버 웹툰도 모회사에서 분리돼 가지고 영업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내 웹툰시장의 70%, 글로벌 웹툰시장의 한 90% 정도를 네이버가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웹툰시장을 선도하는 네이버부터 선도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관행 이런 데 대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의지가 없으십니까?

○**증인 차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계약 중에서 작가님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계약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저희 창작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 제대로 계속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조차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훨씬 더, 연재가 안 되는 작가들이 훨씬 많지요.

그다음에는 플랫폼 기업과의 수익배분 문제에 가장 지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실행을 하면 다른 중소 플랫폼 기업은 당연히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차정윤** 예, 노력하여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암스 랭스 프린서플(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얘기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영국에서 한 1940년대에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 그때부터 나왔고 이게 보면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도에 문화예술의 정책 기조로 직접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간섭을 넘어서, 지원은 고사하고 간섭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문화예술을 정권의 홍보 도구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달에 아리랑TV에서 케이팝 특집 프로그램……

저 3분 당겨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3분 당겨요?

○김승수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다 당기면 어떻게 해, 이따가?

3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라고 이런 특집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케이팝의 미래, 발전 이런 테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기획안에 없던 대통령이 여기 끼어듭니다. 일주일 만에 기획안이 수정돼서 대통령이 끼어드는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프로그램의 구성도 대통령의 토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게 보면 케이팝 진흥 대담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통령 토크콘서트로 변질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케이팝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살벌한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했다’, ‘극우가 횡행하고 있는데 아름답게 제압해 가잖아요’, 이게 케이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편 가르기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구나 이 방송이 공개됐던 날은 그 전날 코레일 접촉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던 날이고 그 사고로 인해서 코레일 사장은 그 다음다음 날 사퇴까지 했습니다. 이런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서 웃고 토크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난 상황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는데 이미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APEC이 곧 개최가 되는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APEC 조직위에서 만든 거라서 문체부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홍보 영상에 보면 갑자기 촛불집회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인위적으로 끼어들어간 영상인 게 그대로 표시가 나는 것이 기획사에서 애초에 보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일련번호, 넘버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넘버링이 없는 이 촛불집회 영상이 갑자기 들어간 겁니다. 국제행사의 홍보 영상까지 정권의 선전을 위한 홍보 도구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K-컬처를 해외에 알리는 데 대통령께서 같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K-컬처를 알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APEC 정상 회의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하고 이 촛불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웹툰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이런 것들처럼 문체부장관은 우리 문화예술인들, 창·제작자들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문체부장관은 우리 문화예술인들, 창·제작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엉뚱하게 간섭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방패막이를 해 달라는 게 문체부장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국민주권 정부는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부분은……

○**김승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누가 중간에 엉뚱한 화면을 끼워 넣었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문체부장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문체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애꿎은 직원들,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문체부장관이 좀 방패막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부 육성 남문터 광장과 관련해 가지고 혼손의 이유를 역사성·예술성·효율성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어떤 절차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문터 광장이 문화부가 22년 11월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을 줬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비 75억을 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청에서 이 부분을 혼손했던 이유와 허용했던 절차,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순천시민 평화 염원을 담은 도보 다리를 노관규 순천시장께서는 이념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념지향적이라고 이야기했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느 단위에서 나왔는지 회의에 대한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도보 다리 건설 과정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투입됐는지 그리고 국비가 투입됐다면 투입된 중앙부처와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이 다리를 철거했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민형배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님, 두 가지 자료를 장관과 문체부에서 저희 방으로 종합국감 전에 꼭 제출해 주시도록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리랑TV의 대통령 노출, 윤석열 정권 첫 3개월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첫 3개월치 아리랑TV의 대통령 노출 빈도, 내용 이거 비교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아리랑TV에 노출된 사례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문화부의 문화정책에 간접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간접한 내용 사례별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감 종감 전까지 조사해서, 실태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보니까 순천시에 대한 예산 지원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따가 국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 김교홍 예, 의사진행발언.

○임오경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문체부하고 공단 확인 결과 국민체육센터 같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자산의 유지에 대한 협약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법 제35조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4조 등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취득한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문체부 등에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재산의 통상적 운용 연한까지는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한이라는 기간은 한 3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관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5개월 만에 철거를 하고 그리고 국비가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다 저는 반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은 이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못 하신다면 다음 시작 전까지 반드시 저희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장관께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증인은 증언만 할 뿐이지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증인의 얘기를 듣든 또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김교홍 갑자기 이렇게……

조계원 위원님.

○ 조계원 위원 오늘 국감 중인 질의 과정에서 답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김건희가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관규 중인에 대해서 종감 때 다시 한번 중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것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기현 위원님.

○ 이기현 위원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15초만 좀 쓰면 안 될까요, 15초만?

○ 위원장 김교홍 무슨 답변?

○ 이기현 위원 아까 제가 차정윤 이사님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장관님께 제안드린 신인 작가 공정데뷔 프로세스 협의체 만들면 네이버 웹툰에서도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 중인 차정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 현안 검토한 다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참여해 주시는 거지요?

○ 중인 차정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사례를 검토해서 그에 부합하는 사례가……

○ 이기현 위원 아니, 사례도 검토하셔야 되지만 협의체입니다. 상생협의체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준비하면 웹툰에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 중인 차정윤 예, 알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은 또 뭐요? 자꾸만 생각이 나나 보지요, 하다 보면?

○ 양문석 위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김교홍 뭐가?

○ 양문석 위원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아까 노관규 순천시장이…… 3·1 만세 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지고 임진왜란 때 제1관문입니다, 남문터가. 그 남문터 광장에 역사성·예술성·효율성이 없다에 대해서 오늘 저녁 이전에 자료를……

○ 위원장 김교홍 중인은 자료를 낼 의무가 없다니까? 문체부가 중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문체부에서 주셔야 돼요.

○ 양문석 위원 초선이라서 잘 몰랐네요. 문체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바로, 오늘 저녁 먹고 질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체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도 75억을 주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우수상, 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상을 준 부분이 일방적으로 훼손당한 건지, 순천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훼손을 허용한 건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전 과정과 회의록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이걸 결정을 했는지, 순천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했는지 순천시청의 회의록 그다음에 그걸 허용한 문화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회의록 그다음에 국비 구성비, 그다음에 국비·도비·시비 구성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면 저희들이 저녁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저녁식사 이후에 순천시장 노관규 시장한테도 질의를 하고 장관한테도 질의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중인들을 보낸다 하니 제가……

○위원장 김교홍 갑자기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회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보내 드리게끔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노관규 증인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셔서 29일 날 종감 때 다시 한번 모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초선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네이버 웹툰에서 오신 김에 하나만 묻고 싶은데 1분만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교홍 왜 시간 충분히 드리고 보충질의까지 줬는데 그만하시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손솔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장 김교홍 그러다 보면 계속 또 하게 되고 1분이 사실은 2분이 되는 거예요. 1분 쓰면 1분 더 달라 할 것 아니에요?

○손솔 위원 1분만 딱.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저기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손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지만 마냥 우리가, 또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

○조은희 위원 드리세요, 증인 가기 전에.

○위원장 김교홍 증인하고 참고인 질의 안 하신 분들 양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세요. 딱 1분이에요.

○손솔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오신 김에 아쉬워 가지고 그런데요. 지난 5월 29일에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하면서 나름 노력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란에 지역혐오나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신고도 넣어 보고 이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있었는데 AI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 계속해서 정돈이 안 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댓글들은 가이드라인에 딱 걸리는 그런 댓글들인데 이게 인력이 부족한 면인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추후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증인 차정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로 시스템을 거르고 그다음에 신고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계속 저희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조금 더 절차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댓글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차정윤 예, 알겠습니다.

○ 손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장관님, 해외여행 다니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민형배 위원 라오스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못 가 봤습니다.

○ 민형배 위원 라오스에 가서 관광객들이 성매매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들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저 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성비를 보면 남성 대 여성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라오스 출국 남성 비율이 한 70%가량 됩니다. 올해는 71%예요.

해외 성매매 관광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불법입니다.

○ 민형배 위원 여행사가 현지 가면 성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고객을 모집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오늘 하나투어 증인이 나왔으면 제가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매매 관광에 대형 여행사들이 연루되는지 그 실태를 장관님께 알려 드리려고요.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해외 성매매 관광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별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지금 뉴스 보셨는데, PT 한번 봐 보십시오.

성매매 알선하는 업자, 전문 불법 브로커가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형 여행사들 대행하는 업체. 저렇게 써 놔요.

올려 보세요.

저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라오스를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가이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서 이제 가이드랑 협의하면 된다’, ‘현지 가이드하고 이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걸 나이트 투어라는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성매매 관광이 대형 여행사의 공식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나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상담사를 연결하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진짜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아까도 미등록 기획사 문제가 나오던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요 라오스를 검색하면 상위 채팅방들의 모두가 조각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잘 감이 안 잡히신가요? 같이 여행 가서 성매매 할 사람들을 모으는 은어예요, 조각을 모은다 이렇게. 모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무등록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체부가, 문체부가 이걸 실태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봐 보세요, 저기 올려놓은 거. 관광진흥법 82조에 보면 등록 않고 여행업 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대요.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확인불가가 67%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실태, 실태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이게요 아동 성착취하고까지 연결이 돼요. 한번 봐 보세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성매매 관광객이라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잡힙니까?

종합대책 2008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봐 보세요, 2008년에 나온 저것. 저때 보면 ‘집체 교육한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부스 전시를 활용한 영상 홍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야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분들이, 문체부 간부들이 지난 3년간 이런 협조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아예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성매매 관광국 2012년, 16년 계속해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실태조사 빨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지 여행사, 현지 가이드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빨리해야 됩니다. 여행사, 외교부, 경찰, 다 협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행사 패키지 광고하는 데 성매매 알선은 불법이라고 하는 문구 반드시 삽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방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조각이 뭔지 모르신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실태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전에 병역비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용계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의 조남규 교수입니다, 상명대요. 지금 조남규 교수가 대한무용협회를 이끌고 있는데 대한무용협회가 실시하는 소위 강습회가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도 있으셨고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 강습회는요 통상 입시 직전 시즌인 7~8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면 협회 주최 강습회 강사는요 모두 4년제 대학 무용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모두 대한무용협회 핵심 임원들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학생들 모집하는데 모집란에 한예종, 서경대, 숙명여대, 용인대 등 교수들의 교수 타이틀은 숨깁니다. 개인 컴퍼니 예술감독으로 눈속임으로 해서 수강생 모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지요. 이분이 한예종 교수다, 숙명여대 교수다. 이 대학 교수들은 자기 소속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 입시에도 심사를 가기 때문에 예술고 학생들은 이런 유료 강습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강습회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립 교육기관인 한예종의 모 교수는요 이 강습회 가서 다음 달 입시시험 작품을 강습 내용으로 미리 가르치는 대담함을 보여 줬습니다. 한예종의 경우에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교수가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강습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수는 이런 절차 모두 생략하고—돈에 눈이 어두웠지요—수강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는 사실상 입시비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구체적인 것은 한예종 국정감사에서 다시 밝히겠는데요. 예고생들은, 강사들이 현역 교수지 않습니까, 현역 교수라는 걸 숨겼지만. 대학 입시, 본인의 대학 입시와 직결돼 있으니까 이 강습회에 125만 원의 거금을 들여 등록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교수, 저 교수 강의를 듣는 겁니다.

계원예술고, 선화예고, 예원학교, 고양예술고 등 국내 주요 예술고등학교 무용 전임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대한무용협회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고 전임교사, 대학교수, 협회의 입시비리 카르텔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혹을 저는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장관님, 앞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꽃다운 나이의 브니엘예고 학생 3명이 손 잡고 나란히 투신 자살했잖아요. 그 죽음 뒤에는 무용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병역비리, 입시비리 그리고 협회 카르텔 그리고 학교와 학원 간의 카르텔, 뿌리 깊은 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보받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추적하고 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이 비리의 고리, 제가 무용을 왜 이렇게 하느냐?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용뿐만 아닙니다. 음악계, 국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고질적 비리가 아직도 이렇

게 만연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 부분부터 빨리 바로잡아야 저희가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초부터 다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문체부가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해킹 또는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쭉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문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모두 1만 8000건이나 넘게 있었던 것으로 표의 통계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총 6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유독 많은 상황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만 8000명이 넘는 학생 정보를 탈취당했고요. 영진위, 제일 아래 칸에 있습니다. 영진위는 2월 16일 날 해킹을 당했지만 한 달이 지난 3월 18일에 와서야 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 상황을 인지한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본부의 상황마저도 좋지 않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서 웹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발견되는 취약점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20건을 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문체부도 해킹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현재 15명인 보안담당 인력을 26명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26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5명은 전체 필요 인력의 약 36%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되었던 중앙도서관 그리고 5년 사이에 360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립국악원에는 아직도 해킹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18개 산하기관 중에서 14개 기관의 해킹 전담 인력이 0명인 상황,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번 볼까요?

해킹 관련 예산 확보 상황도 문제가 아주 큅니다. 11개 내역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노후 보안관제 장비 교체에 필요한 12억 6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억 원밖에 반영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정도 상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또 지난 2월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공직자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명 해킹 포럼에 게재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하기까지 했어요. 공직자 메일이 해킹당한다는 것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공직자 메일인 코리아 주소를 활용해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문체부가 정보 보안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두 달 반 됐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까지 이런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정상화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어느 곳을 우리가 더 쟁겨야 되는지를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둘고 당황해서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차분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문체부 본부에까지도 이런 상황인 것을 보면 심각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보안 해킹방지시스템의 완비를 정부부터 서둘러야 하고요.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반복되는 문체부 웹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봤더니 올해 한 59억 정도 예산이랑 40명 정도의 전담 인력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4개 기관은 전담 인력은 없다고 하지만 그 담당자들이 정보보안 담당자가 겸임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돼 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 부족하고 예산 부족합니다.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해야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킹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40명에 대해서 겸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겸임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점에 담대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해킹을 담당하는 전문 컨트롤러가 없어요. 통합 기구가 없어요. 각 부처 그다음에 각 그 부처 밑에 있는 수많은 소속기관들이 다 과편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국무회의에서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암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암표.

8월 30일 날 박수현 의원실에서 지적한 인천 스파이 아레나에서……

○이기현 위원 인스파이어예요.

○양문석 위원 인스파이어예요? 언제 바뀌었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SM의 NCT WISH 유닛 티켓이, VIP 티켓이 19만 8000원이었는데 무려 40배, 800만 원에 팔렸어요, 암표가. 암표 문제는 양문석 의원실에서 따로 또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좀 따로 이야기하고요.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국내 팬들이 오히려 표를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K-공연 해외 판매량이 3년 동안에 600%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내 팬들이 외려 설 자리가 없고 암표가 40배 정도의 기본가보다 뛰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2022년에 우리나라 주요 예매처 국내 공연 티켓 해외 판매 수가 2002년에는 6600장 정도 팔렸어요, 2022년에는 23년에는 21만 장, 24년에는 45만 장, 3년 사이에 무려 600%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통계가 안 나온 25년에는 훨씬 더 많은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티켓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9월 16일 날 고척돔에서 조용필 ‘이 순간은 영원히’ 최근에 KBS 추석 특집으로 나왔지요. 티켓 판매 3분 만에 1만 8000석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이 정도로 좀 규모 있는 대형 이벤트가 펼쳐지면 3분, 1~2분, 순식간에 동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초대형 이벤트를 공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한 번 깔았다가, 지난번 보이스카우트 때 깔았다가 18% 정도의 잔디 훼손율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지요. 거의 2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돼서 잔디를 회복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시프팅(shifting)이, 전환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음향이나 그다음에 무대나 그다음에 잔디 보호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정돈돼서 상암구장에 맞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상암구장에서 훨씬 더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다 주요 대도시에는 있는데 그런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대형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한 것은 공연장, 기존의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 전용 공연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전에도 이기현 위원의 고양시 아레나 문제가 지적된 것처럼 그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그리고 단기 과제로는 주요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전환하고, 축구경기장에서 공연장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꾸 돈 없다 그다음에 필요하니까 찔끔찔끔 50억 예산 올리고 70억 예산 올리고 이렇

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K-컬처 300조를 가기 위한 수많은 기초 작업들이 필요한데 해외 관객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해외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가 없고 그 아레나를 당장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오전에 문화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내년 예산에 연구과제로 한 50억 책정했다, 지금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판매가 3년 동안 600%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문화부의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고 있다. 장관께서 K-컬처 300조 그리고 꿈 속에서 500조를 한번 돌파해 보겠다는 그러한 포부들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속도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시간이……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미 1분 더 쓰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마무리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정하 예, 마무리하세요.

다 하셨어요?

○양문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게요?

1분 더 하세요.

○양문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장…… 그리고 나서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해외의 구매력을 국내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못 따라가니까 국내 팬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런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해외라는 큰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와 그다음에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권을 1차로 두고 그리고 해외에 우리의 공연 K-컬처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품격 있고 우아한 토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암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매크로를 활용해서 하는 티캐팅 행위 그걸로 인한 암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크로로 티켓을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손으로 한 건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매크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암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회에는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은 또 문체부안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인 근거들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피케팅이 심하냐, 티케팅을 하는…… 애써서 하는 것들을 피케팅이라고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공연장이 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연장이 작은 공연장밖에 없습니다. 5만석 이상 될 수 있는 곳이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 유일하게 상암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암 경기장은 잔디 때문에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의 성지라고 할 수 있고 또 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웹블리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런던에. 거기에서 블랙핑크라든지 BTS도 공연을 했는데요. 그쪽은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수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매트를 저희도 가지고 와서 문체부가 임대를 해 드리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테스트를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도 지원을 해 드려서 상암구장을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좋은 경기장, 좋은 스타디움을 그런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 하려고 하는, 상암구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전국의 주요 도시의 월드컵경기장에도 동시에 적용을 하는 사업들을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둘 아래나를 빨리 착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입니다.

K-컬처 지금 계속 300조 시대를 얘기하고 아마 K-컬처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면 아무래도 글로벌 스타들을 동원할 수 있고 운용하는 엔터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그동안에 엔터사들이 벌여 온 약간 도덕적 해이, 결국 이게 위낙 글로벌 스타들이 동원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우리나라 국격과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7월에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임명된 그룹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뉴진스……

○정연욱 위원 뉴진스라고 지금 돼 있고.

지금 뉴진스 어찌 됐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뉴진스를 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브, 여러 가지 지금 금융 당국에서 오너 조사도 받는 상황이고 이 글로벌 엔터사 직원들 3명이 내부자 미공개정보로 또 여러 가지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입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문체부는 약간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하나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10년 전에 국회가 여야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JYJ 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법안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때 동방신기라는 남성 그룹이 SM하고 불공정한 전속계약 때문에 탈퇴하면서 다시 이 그룹으로 재편했습니다. 재편하면서 바로 부당한 방송 출연 제한을 막자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JYJ법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단 하나의 반대표도 없이 표결했던 법안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것이, 엔터사의 소위 갑질을 막아 보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가 모처럼 뜻 있게 합의한 법안입니다. 이게 또 대표적으로 케이팝을 이끄는 K-컬처의 가장 동력인데 실제로 어떤지 좀 보시면 이런 대형 기획사가 방송사에 갑질을 행사해서 특정 연예인 출연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걸 막아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잘못된 행위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때 2009년 이 동방신기 멤버들이 SM과 불공정 계약이 돼서 4년 이상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사태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EXO의 시우민이 소속된 소속사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만큼 당사 직원들은 시우민이 음악방송을 통해서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수차례 방송사와 미팅을 가지려 노력하였으나 KBS는 저희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는 묵묵부답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BS 측은 비공식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시우민이 동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JYJ법이라는 게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서 이런 엔터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 보자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실제 이 부분에서 전혀, 현실은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분명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시가 되다시피 한 내용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최근 5년간의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방해 의혹 사례가 있었는지, 문체부가 과악한 사건 현황이 있는지, 과연 SM 등 주요 대형 기획사 관련 조사·점검한 게 있는지,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새로운 비밀 자료도 아니고 사실상 오픈된 자료입니다.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입장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방송사가 개입돼 있어서 아마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렇게 대답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정연욱 위원 이러니까 자꾸…… 어떤 대형 기획사, 엔터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K-컬처에 여러 분야들이 있겠지만 자꾸 문체부가 어느 부분에서든 개입을 안 한다는 게,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자체를 방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상징적인 입법으로 추진됐던 건데 도대체…… 앞으로 이렇게 모든 것에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실 K-컬처를 글로벌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협의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대형 기획사들입니다. 그런데 대형 기획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오해를 받을 수 있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기구는 거창하게 많이 띄워 놓으셨지요? 반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분명히 진전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를 종감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대형 기획사들과도 지금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하기 위한 일들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사례 문제들은 이것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도 또 이 기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공연장 가 보셨지요? 공연장을 가 보면 시설 안전은 소방청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안전 문제는 문체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안전규정이 공연법에 담겨 있습니다.

화재 연출 공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불꽃을 사용하는 거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공연장은 관객들한테 몰입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불꽃, 폭죽, 연기 같은 특수효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연장 자체가 원래 어둡다 보니까 여기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있다가 불이 나게 되면 공연장은 아주라장

이 되고 결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장관님?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공연장 무대 뒤쪽의 안쪽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들어간 적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혹시 공연장 안쪽 상부의 그리드(Grid)라고 아세요? 그리드라는 것은 무대 안쪽 가장 상단에 바텐(batten)이라든지 무대의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그리드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 8월에 안양 아트센터 그리고 경기 아트센터 공연장을 직접 점검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으로 된 백스크린이 여러 장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전선 또한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보시면 먼지 또한 아주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높이가 높고 사람이 직접 청소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공연장 관계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위험 때문에 2023년 전부터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의무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설치 대상과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설치 기준·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1000석 이상 돼 있는 곳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1000석 이상,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화재보험협회 보고서에 보면 공연장 화재는 연기와 어둠으로 인해서 대피가 지연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실제 1881년 오스트리아 빈 링극장 화재에서는 8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현재 문체부 방화막 규격에는 내압 성능이 빠져 있습니다. 화재 시 산소가 줄어들면서 압력 차가 생기는데 그걸 벼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압 성능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보면 이미 내압 성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내압 성능 규격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체부가—KTL이라고 아시나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2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내압 성능 450Pa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KS 규격까지 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설치 기준에는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체부 내부 자료에는 있으나 설치 기준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KS 규격까지 만들어 놓고 왜 설치 규격에는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예술의전당 화재 당시에 독일제 방화막 내압 성능 덕분에 2400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현행 설치 규격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문체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이 빠졌고 왜 빠졌는지 책임을 규명하셔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종오 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 대상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만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데 지난해 보시면 1528만 명 중 72%가 1000석 미만 공연장 그리고 민간 공연장을 이용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국 1269개 공연장 중에 방화막이 설치된 곳은 98곳뿐입니다. 그마저도 성능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주세요.

○진종오 위원 또한 처벌 규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기 기관을 자기 지자체가 처벌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공립 공연장 오십네 곳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1000석 이상 부분은 2026년 5월까지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진종오 위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마지막으로 최근 5년 동안 공연장 화재가 6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에 대한 무책임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 저는 이런 이미 KS 기준을 반영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남은 것은 장관님,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실태조사 확실하게 하시고 종감 전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에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1000석 이상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기준이 빠져 있고 이렇다는 점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아서 확실하게 챙기도 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꼭 점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리고 300석에서 1000석 이하 이쪽도 화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너무 절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중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또 고민해야 될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종오 위원 이미 기술력은 겸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고요. 하중이 문제가 아니고, 하중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 대다수

가 이용하는 게 1000석 미만의 공연장을 더 많이 이용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000석 이상의 공연장만 공연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오랜 시간 계속 고생하십니다. 제 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매번 하다 보면 준비했던 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도 보면 장관님 두 달 반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서너 달 됐나요? 그런데 문체부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는 것 그다음에 추가하고 재촉하는 것 이런 것 보면 한 3, 4년 차 정부 같아요. 뭔가 느슨하고 뭔가 안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국감 내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증인·참고인들 나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그게 다 문체부가 챙겨야 될 업무인데 과연 얼마나 그걸 챙기고 있었는지, 그게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대중문화가 사는 거고 그게 우리 한 천 번쯤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 K-컬처 300조에 가는 길이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이 무슨 실국장 인사마저도 챙기지 못할 상황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느슨해서 그런 건지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요.

오전 질의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K-컬처 300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는 안 들어가요. 연관 산업이라 빠진다…… 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표 연도는 2030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300조를 맞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박정하 위원 제가 얼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료 받은 걸로 보면 K-콘텐츠라고 하는 11개 장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등등 해서. 그거에다가 예술산업 관련한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보면 2023년 기준으로도 K-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미 154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술산업까지 포함하면 2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0조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가 궁금한데 그게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

러 번 여쭤는데 분명한 답이 없어요.

오늘도 장관님 업무 보고하신 내용 보면, 11페이지입니다.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서의 콘텐츠산업 육성 이래서 그냥 다 펀드 만들고 무슨 용자하고 세제혜택에 민관협의체 출범이에요. 앞서 쭉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들,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문제니 참고인들 나왔을 때 웹툰이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던 게 뭐냐면 9월 달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이라는 이런 프린트물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장관님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목만으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정하 위원 제목은…… 보셨어요? 이 내용 대충 제가 봤는데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준에 했던 사업에서 예산 조금 더 얹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용자 많이 하고 어디 돈 더 많이 쓰고 하는 것 외에는 뭘 갖고 K-컬처 300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기왕에 있던, 이미 됐던 200조에다가 대충 뭐뭐뭐 이거 합쳐 가지고 300조 만들어서 5년 후에 ‘우리 다 했습니다’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냥 이것도 상징 조장 아닌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핑크빛 줘서 맨날 그거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자꾸 여쭙습니다.

자, 이거 종감 될 때까지 뭔가 손에 잡힐 만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게.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릴게요.

박진영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국감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사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 여쭐게요.

장관님하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하고는 협업이 잘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잘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자주 만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언젠가 한번 한복 입고 이렇게 크게 행사하시는 거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출범식을 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거 말고 회의하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회의 몇 차례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몇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했더니 문체부에서는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답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여서 지금까지는 박진영 위원장과 제가 한 거고요.

○**박정하 위원** 실질적인 건 안 하고 구성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다음에 10월 1일 날 출범식을 했고요. 분과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는 분과별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박정하 위원** 그 후에 분과별 회의가 진행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분과별……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오전에 제가 여줬던 대통령 중심의 수보대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의가 있고 장관님 회의가 있고 이렇게 분산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대통령님이 하시는 대통령의 수보회의는 늘 일상적으로 하시는 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까 K-컬처 300조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정하 위원** 말씀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K-컬처 300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과 예술산업 합쳐서 지금 한 20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5.8% 정도의 성장을 해야 300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짜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K-푸드도 마찬가지고요 K-패션 혹은 K-뷰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이나 예술산업이 아닌 거지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것도, 사실 K-컬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K-관광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K-컬처라는 말 자체가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는 되게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조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시장, 큰 무언가 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금 문체부 안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도대체 K-컬처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외연을 이루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각각을 어떻게 2030년까지 성장시킬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라고 지금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말씀을 주시고, 그게 그냥 펑크빛 무드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

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우리 K-컬처 300조 이미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초부터 로드맵을 잡아 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을 같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K-컬처 300조 그다음에 2030년도에 수출 50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건데 중간중간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할 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정확하게 말씀처럼 2030년 가서 무언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로드맵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실국장님들에게 제가 또 장관님과 함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금상작 ‘윤석열차’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이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을 해서 중인으로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가 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알고 계세요?

김재현 대변인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예.

○임오경 위원 전 콘텐츠정책국장이었어요. 그때 저하고 함께 2022년도 국감 때 실갱이를 참 많이 했지요.

자, 다시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형배 위원 빨리 철거하세요.

○임오경 위원 아니,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지금 다시 전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전시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그대로 둬야지요, 여러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임오경 위원 그대로 둬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예.

○**임오경 위원** 답변이 2022년도하고 다르네요. 지금 현재로는 콘텐츠국장이 정상원 국장이지요? 정상원 국장에게 어떻게 지시하겠어요, 그 당시를 되새겨서 다시 말씀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제가 지시를 한다고요?

○**임오경 위원** 도움을 드려야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발 벗고 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그 당시에는 그때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원래 공모전 요강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요강과 크게 다른 것 없었습니다. 카툰이라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풍자한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김재현 대변인께서 그 당시 정책국장이었으니까 그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셨습니까, 상처받은 학생에게?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김재현** 예, 그 당시에 사과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문체부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원 콘텐츠국장님, 지금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 다시 전시되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번 가 보셔야지요. 콘텐츠국장님이면 직접 가셔서 2022년도하고 2025년도 3년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질의할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전시 잘하게 내버려둬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김재현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예산 삭감입니다.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문체부가 표현을 탄압한 안 좋은 선례를 좀 남겼고요. 예산 관련돼서 부산만화공모전에서…… 예산을 완전히 다 삭감시켰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다 삭감시켜서 이런 보복행정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풍자해서 이런 카툰 만화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 전시를 접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 중구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뚱꽝’, ‘팔꽝’의 전시를 막기 위해 전시실을 또 폐쇄했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의 이런 결정은 ‘윤석열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장관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예술인들의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이거 또 전 장관에 대해서 또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인촌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가짜뉴스라고 여겼다면 자신과 계엄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말했고 계엄 당일 한예종 폐쇄에 대해 문체부 당직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귀가조치를 하라고 한 것 같다, 마치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뻔뻔스럽게.

그런데 최근 특검 수사 결과 한예종 폐쇄 직후 한덕수 총리와 유인촌 전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단순히 당직자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지금 수사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특검 수사에서 일일이 지금 다 나오고 있지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CC카메라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님, 한예종 폐쇄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누구 연락받고 누가 연락해서 당직자에게 한예종 폐쇄를 지시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당시에 저희 당직근무 관련해서 그냥 그 라인을 타고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예종 캠퍼스는 원래 안기부 이문동 청사 건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구금할 목적으로 폐쇄가 지시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검에서 다 밝혀질 건데, 신은향 예술정책관님은 아직 특검에서 안 불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신은향 예, 관련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임오경 위원 안 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안은 문체부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계엄에 문체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할게요.

문체부가 작년에 발주한 정부광고를 보면 MBC·SBS는 0건, MBC는 23·24년도 양해연도에 다 0건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조중동 같은 언론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뛰었어요, 22년도부터 24년도 사이에. 조선·동아도 8배가 뛰고. 이거 누가 봐도 편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SBS하고 MBC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지요? 그런데도 정부광고가 하나도 실리지가 않아요. 문체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 전체 정부광고를 봐도 MBC는 7.6% 감소했고 JTBC는 10.8% 감소하고 같은 기간에 TV조선은 53.5%가 급증했고 보수 편향 논란 KBS도 13.8%가 증가했고 조중동 역시 14.8%가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정말 정권에 듣기 좋은 보도를 하면 광고를 늘려 주고 쓴소리를 하면 광고를 안 주고, 이거 언론을 돈으로 길들이기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앞으로도 심각해요. 정권은 계속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가 정부광고 모든 것의 컨트롤타워인데 이걸 한 사람도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특히나 극우 매체인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이 스카이데일리는 계엄 당일 날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주한미군에 의해서 체포됐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기사를 낸 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정부광고 전수가 굉장히 급증을 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면)

저는 특허나 우리 인천시, 제 지역구가 인천인데 창피하지만 인천은 ‘대한민국의 비극… 대통령 불법 체포 당했다’ 이렇게 딱 스카이데일리 1면에 나오면서 밑에 광고 ‘고마워요 인천시!’, 뭐가 고맙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다가는 광고를 퍼 준단 말이에요. 인천지역의 언론들한테는 적게 주면서 이런 데는 줘요.

장관님, 이게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건지,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또는 그거에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문체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매체에 아직도 정부광고가 집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도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집행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곳들이 지자체에서 인천광역시의 광고가 여전히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스카이데일리가 받는 광고 액수의 3분의 1이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정부광고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하거나 정부 편에 들어가는 데는 광고를 많이 주고 또 쓴소리하는 데는 적게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언론·방송 매체를 제대로 해서 광고를 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매체별 균형,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잡힌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많은 매체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지침을, 가이드를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같은 곳에서 보통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는 정부광고주들이 어느 매체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늘 명시적으로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교홍 공개도 하고 자료도 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극우 유튜버들이 또 문제예요. 정권 정보를 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극우 유튜버들한테 먼저, 언론·방송에 주기 전에 극우 유튜버들한테 먼저 줘요. 정권 정보를 먼저 줘서 그들이

장사하게끔 하고 그들이 국민들을 혐혹시키고 그들의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양분화돼 갖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수석행정관의 중언도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넘겨 줬다. 아주 양심선언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유튜버들이 올렸던 37개의 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1만 8000개가 지금 삭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슈퍼챗 수익으로 13억가량 수익을 올리고 또 후원금을 걷고 하면 한 20억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이걸 그냥 문체부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국민들은 양극단 속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양극단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서 이렇게 국민을 혐혹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유착 정보, 선동 정보 이런 것들은 대책을 반드시 문체부에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명을 갖고 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극우를 떠나서, 진보를 떠나서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막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문체부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K-문화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K-콘텐츠가 해외에서 표절되는 사례가 심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사실 글로벌 돌풍을 일으켰던 ‘흑백요리사’라는 게 있어요, ‘흑백요리사’.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이거를 중국에서 그대로 표절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출 서 있는 거 또 검은 옷, 하얀 옷 입은 거 이런 시스템이 똑같아. 중국말만 없으면 이게 한국판이지 중국판입니까? ‘이판평선(以飯烹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윤여정 씨가 나오는 tvN의 ‘윤식당’ 이것도 ‘중찬팅(中餐廳)’ 이걸로 또 표절을 했고 Mnet의 ‘쇼미더머니’ 여기는 ‘랩 오브 차이나’로 표절을 했고 TVING의 ‘환승연애’는 ‘친구라도 괜찮아’ 이걸로 다 표절을 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K-컬쳐 300조, 50조 수출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다 표절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흑백요리사’ 이거는 제작비만 100억이 든 겁니다. 이거를 한 푼도 안 내고, 저작권료도 안 내고 자기들끼리 똑같이 하얀 옷, 검은 옷 입혀서 이렇게 표절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지식재산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식재산권 해외 표절 대응 및 지원 제도를 하고 국제 분쟁 예방까지 대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작권은 문체부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체부는 고작 예산 한 8억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다 이게 사건이 터지면 소송 지원비나 일부 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체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건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도 만들고 또 외교부가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서도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항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오늘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나왔는데요. 장관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들한테 장래희망 조사했더니 1위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예요. 아시지요? 거기에만 무려 43.2%가 몰렸습니다.

혹시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에 대해서 점수가 일정 미만이면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기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은 해야 될 일이지만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있어서요.

○**민형배 위원** 애매하시군요. 애매하시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요 악용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 3월에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저학력제를 반대한다는 당시 문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실게요.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 개정 전후 상황을 비교를 해 뒀는데, 그대로 놔둬요.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 놓고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해야 된다’. 이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하는 이

것 때문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실태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것도 잘 안 돼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에요. 음악·미술 전공 학생들한테는 최저학력제가 없거든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왜 체육선수하고 음악·미술 전공자가 달라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아직…… 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돼서 대회 출전을 막습니다.

이것 정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

○민형배 위원 아니, 운동할 선수…… 학생에게, 운동선수에게 운동할 기회를 뺏는다 이것 보호가 아니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저렇게 나와요. 학생선수·학부모·지도자 4000명 대상 설문조사 했는데 대다수가 폐지 또는 개선이에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학습권과 훈련권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아직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논란이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어떤 쪽에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 교육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문체부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봐 보세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이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니까요, 효력정지해 달라고.

65건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

○민형배 위원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 이 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육부하고 전면 폐지 공식적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저런 가처분까지 나왔다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논의, 전면 폐지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문체부는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회장, 창무예술원 김매자 이사장에 전생에 빚진 게 얼마나 많길래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이 두 특정 단체에 자동이체 통장처럼 꽂아 주고 있습니까?

먼저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회장 건부터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무용협회 연도별 7억 7억 8억 8억, 5년간 40억입니다. 고정적 지원 전국무용제에 8억 원, 젊은…… 잘 안 보인다. 9000만 원, 대한민국무용대상 6500만 원, 죽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문체부하고 문예위가 대한무용협회에 이렇게 꽂아 주는 동안 우수하고 유망한 예술단체들은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단체들의 경우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데도 두둑 떨어져요.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 37년간 작가주의를 표방해 온 현대춤작가 12인전, 역량 있는 국내 안무자의 국제무대 진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SCF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이렇게 줄줄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그동안 공모하던 대한무용협회의 전국무용제를 2024년부터는 아예 지정사업으로 변경해서 공모도 없이 그냥 통장으로 6억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매자 이사장은요 창무예술원 이사장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91년 수험생 부모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고 그래서 교육부와 예술계를 흔든 중요한 입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PPT 한번 보시지요.

지난 8월 창무국제공연예술제 리허설 중에 벌어진 끔찍한 추락사고 현장입니다. 안전 보호 펜스나 무대 전면에 추락방지 장치 전혀 없었습니다. 이 중 1명은요 폐를 3분의 2 절제하고 비장을 적출할 정도로 대수술을 거듭하고 중환자실 입원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주최 측인 창무는 나 몰라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자비로 부담해야 됐는데 창무가 이날 이 팀, 나브(NARB)팀 11명 단원에게 공연 출연료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30만 원 줬습니다.

좀 더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조은희 위원** 일인당 2만 7000원입니다, 일인당 2만 7000원. 물값도 안 되지요.

출연진한테 고작 2만 7000원씩 주면서 매년 창무예술원으로부터 수억씩 지급되는 지원금 도대체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창무예술원이 가족 회사거든요. 김매자 이사장 가족 생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까?

장관님, 문체부는 도대체 조남규·김매자한테 어떤 빚을 졌길래 이렇게, 회계감사도 안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는 회계감사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 잔치를 벌이도

록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이 예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과 특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어찌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께서 오늘 일관되게 무용계의 고질적인……

○**조은희 위원** 무용계뿐만 아니고요. 무용계는 애들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그잼플(exemple)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무용계로 대표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한번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고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잠시 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NCT WISH 콘서트의 경우에 정가 19만 8000원의 VIP 티켓이 40배가 넘는 800만 원대에 거래되는 암표 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본 의원실에서도 이 암표 거래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직접 인기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암표를 한번 거래해 봤는데요. 정가 15만 4000원짜리 티켓을 51만 9000원, 무려 3배가 넘는 가격에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가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래의 방식입니다. 해당 판매자가 현장에 나와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입장 팔찌를 수령한 뒤에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해서 본 의원실 보좌진의 손목에 옮겨 주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옮겨 받은 팔찌로도 아무 문제없이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었고 이것이 현재 온라인상에서 가장 혼란 수법입니다. 결국 본인 확인 입장 제도라는 것조차 암표상들의 이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단순한 티켓 되팔기가 아니라 지능적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처리현황을 반면에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359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2년에는 4224건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2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8월 말까지 이미 1020건이 접수됐습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 암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입니다.

PPT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티켓의 부정행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암표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부정 예매와 웃돈 거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매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해 봄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예매처에서 부정 예매와 웃돈 거래를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조치 실적이 한참 뒤처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 조치 실적을 보면 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가 5000건이 넘지만 이 중에 유효 신고로 인정된 건은 306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매처와 협력해서 조치를 취한 건이 고작 206건에 불과해서 전체의 4%도 안 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 분야 온라인암표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이 달랑 1명입니다. 이마저도 암표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조차 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게 명시돼 있지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장관님,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 보좌진이 이 거래를 해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그것을 부정판매하는 사람이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암표 시장에 뛰어드는 현실, 범죄 의식조차 없이 불법거래에 노출되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말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암표 거래는 공연문화 자체를 흔드는 기반을 잡아 먹는 행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도적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암표 전체를 어쨌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매년 국회에 총 143건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보고서 15건 중에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8회, 아예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보고서가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보시지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문화산업 진흥 연차보고서는 법률상 제출했어야 되는 2009년 이후에 단 세 차례만 정식 보고가 됐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는 2008년에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도 국회에 정식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정 보고의무 위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됐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앞으로는 국회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의안과를 통해서 연차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보시면 장관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9월 24일 날 해석을 했는데 ‘국회에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통한 공식 접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체부 다른 부서들은 정식 절차대로 제출을 해 왔거든요. 유독 문화산업정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 두 부서에서만 10년 넘게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부서들은 보고서 수신 주체 및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률을 임의로 자의대로 축소 해석해서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저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향후의 개선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연차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의사국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회에 정식 제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열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출기한을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자체점검 체계나 사후관리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 감독 기능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입니다. 조직적 태만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담당자들 엄히 문책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오늘 계속해서 K-컬처 300조를 향한 대장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과 관련해서는 무등록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시설은 아레나의 조기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콘텐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의 가장 기초는 화학이고 그리고 체육의 가장 기초는 육상입니다. 그러면 영상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독립·예술영화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독립·예술영화 PPT 한번 보시면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에 316억 그다음에 2024년에 233억, 2025년에 230억 그리고 26년에 문화부가 낸 게 220억, 계속해서 줄지요. 3년 전보다 한 30%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들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는 3년 전 비교해 가지고 30%가 줄 정도로 독립·예술영화를 홀대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많은 훈련들이 이루어지

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예술영화가 이제는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부분이고요.

PPT 보시면 정부의 외면에 따라서 작품의 질적 하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16년·19년·20년에 1만 명 이상 보던 작품들이 나왔는데 2021년 이후에 겨우 7000, 8000, 4000 정도의 누적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수상 영역에 있어서 거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PPT 3번을 보면,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상영된 독립·예술영화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단 두 편인데 1번 ‘퇴마록’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10개 중에 달랑 하나 ‘팬찮아 팬찮아 팬찮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영한 톱10 중에 1개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문화부가 독립·예술영화를 얼마만큼 홀대하고 있는지가 대체적으로 보이고.

상체만 크면 뭐 합니까, 하체가 부실한데? 모든 운동이든 모든 산업이든 탄탄한 기초 속에서 상체의 열매를 맺는데 하체가 부실한 현상으로 계속해서 문화부가 몰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계속해서 지적되는데 영발기금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하면 단편 독립·예술 영화 만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화부의 기본적인 대안들이 일절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지적합니다. 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3개월 전에 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못 담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기재부나 국회나 해 가지고 의논해서 기본적으로 장편…… 한 이삼 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세 번째, 상영관이 없다 말이에요. 심지어 울산, 세종, 전남 전역, 제주 여기에는 아예 자체 상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300조로 가기 위한 탄탄한 콘텐츠의 기반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내용은요 앞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AI 고도화 예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독립영화 예산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기초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기초 없는 산업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더 허무한 K-컬쳐 300조의 모래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들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독립영화가 영화·영상 산업의 바탕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2024년에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내년 예산은 독립영화 쪽은 다시 증액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나름 반영을 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25년이 230억인데 지금 26년은 220억대예요. 거의 한 70억 정도…… 또 축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장관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과 관련된 부처에 있는, 부서에 있는 문화부 공무원들의 태도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분 챙겨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산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디부터 빨리 챙겨야 될지를 정리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65억 정도 지원되던 게 내년에는 205억 정도로 한 24% 정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 쪽에 빨리 예산 지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영진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부가 챙기고 있는 것은 중예산이라고 하는, 40억에서 50억 정도에 대한 중예산 영화는 10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예술영화 영역은 계속해서 축소 일로고요. 상영관 떨어지고 있고요. 회계도 엉망이고요.

그리고 영화 영역은 드라마와 직결돼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케이팝과도 직결돼 있는 영역입니다. 영상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문화부에서 상당히 지금 미진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중예산 영화 증액을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다라는 부분은 고무적이나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독립·예술영화 부분은 계속해서 소외에 소외를 거듭하고 있고 없애 버리고 싶어 하는 일종의 음모론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안 되면 상영관에 커트를 걸어서라도 독립·예술영화를 넣어 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플랫폼에 어떻게 태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부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정리가 되고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제가 어제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PD들을. 그런데 심각해요, 진짜. 또 특히나 지역에서 만드는 지역영화.

그런데 실제로 독립영화를 제작하면 관람객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또 지역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어떤 때는 예산을 주고 어떤 때는 삭감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 한번 장관님께서 시간 나실 때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작 쪽도 예산을 늘렸고요. 유통·배급 쪽도 늘렸고 영화제 쪽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멀티플렉스에 독립영화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멀티플렉스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독립영화 부분은 우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날씨는 선선하지만 지금 가을야구 전쟁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구 전쟁에서 암표는 또 다르게 거의 티켓 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예매를 넘어서 선선예매, 선선선예매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대개 시즌권 그리고 멤버십 이런 것을 통해서 선예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과 등급에 따라 좌석이 미리 다 결정돼 버리니까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 문체부 답변은 거의 없습니다. 구단은 그냥 장사하고, 저희가 요청해 받은 자료는 문체부는 그냥 해당 사항이 준비된 게 없다, 관련된 지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구단들은 선예매 이 단계를 확장해서 사실상 돈으로 사는 권리로 변질됐지요.

암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 보세요. 블로그 얘기를 한번 보시지요.

일부 암표상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암표 장사를 해서 성공담처럼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경기에서만 1500만 원, 한 달 수익이 2800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결혼 자금으로 썼답니다, 땐 것 안 하고 순수 암표 장사만 해서. 그것을 또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공공연하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뜻뜻하게 자기가 아예 티케팅 인증을 해서 올립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불법 수입 자체를 성공담처럼 내세우는 현실에 문체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고가 시즌권이나 멤버십 남발 결국 이것은 암표로 갈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이것 가지고 중고 거래에 넘기는 그런 뉴스도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문체부가 그동안, 이 부분은 KBO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단속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한다는 준비 상황은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을야구라는 게 티켓 구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전쟁을 치르는 게 사실이고 이 모든 게 선매매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 티켓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암표상이 버젓이 활개칠 수밖에 없는 토양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건지, 일부 선제적으로 롯데나 몇 개 구단은 먼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 차원의 이게 매년…… 프로야구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문화향유권까지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과연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있을 건지 한번 좀……

이제 구단이 이런 고가 시즌권이나 멤버십이나 유상 선예매권을 앞세워서 입장권 장사를 하는, 어차피 구단도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스포츠 문제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과도 부합하려면 최소한도의 장치는 갖춰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암표 부분은 저희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암표상들이 표를 사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암표상들이 표를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는 것을 막는 쪽에서는 지금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티케팅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의, 티켓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검증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종감 전에 의견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핸드폰 보는 분들이 꽤 상당수가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에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정자세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고 아래야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장동광 원장 성추행 사건, 성희롱 사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3월에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고요. 4월, 성교충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성희롱으로 공식 판정한 사건입니다. 다만 해임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해서 해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징계 수위가 해임에 이르지 않는다고 문체부가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작은 조직인 것 알고 계십니까? 한 건물 쓰고 있고 인사동 안국역 앞에 있는 자그마한 빌딩에 있습니다. 3개 층 쓰고 있고요. 원장이 5층 그다음에 피해자가 지금 4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이것, 제가 이 피해자 누군지 모르지만 장관님 딸 같다고 하면 근무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치하는 것 문체부가 정말로 성인지성도 떨어질뿐더러 기본적인 인사 관리의 처참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답 내

주십시오. 올해 8월에 정관 통과됐고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과장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시면 그분들에게는 그 지장이 지옥일 겁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하고 아침, 점심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가능하겠습니까. 직원이 몇백 명인 조직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안 되는 조직인데 조치 취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김명규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유 장관이 했던 광대무변 대표지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운영지원과장을 했던 김상욱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분들 탄핵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낙하산, 특히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종감까지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이 알박기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 정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저작권협회가—다음주 감사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문체부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문체부의 시정명령도 지금 9년 동안 411건 중에 125건, 약 30%를 불이행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신탁단체들에 비해서 불이행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이라든지 임직원의 과다한 수당 지급,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관련해서 시정요구도 무시했고요. 정회원 증원해 달라는 것도 지금 무시되었습니다.

음저협은 이런 문체부의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내부의 감사 기능까지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기들이 23년 2월에 감사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한번 들어 보실래요? ‘감사 대상 및 대상이 되는 기간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감사 기간 외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면담 등의 감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말이 되는 감사입니까? 아니, 회장이 감사 기간도 정하고 대상도 선정하고 회장이 정하는 대로 하는 감사가 이게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저는 이건 어느 사회주의 국가,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탈해 가고 있는 음저협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제도적 방법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문체부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의합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음저협의 방만경영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법 개정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저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추가열 회장 다음에 중인 채택돼서 나오면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매섭게 물어볼 텐데 문체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번에 확실하게……

○**이기현 위원** 지금 IP 사업의 제일 핵심조직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K-콘텐츠의 IP 관련한 핵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K-컬처 300조 달성을, 귀에 못이 박히시겠지요? 그 달성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서 한류 확산과 K-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까지 했고요. 여기서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정작 K-콘텐츠의 핵심인 창작자 보호는 문체부에서 또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창작자 보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 집행지침을 보면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음악, 영상, 안무 등 분야별 저작권 귀속을 세분화하거나 창작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조차 실질적인 창작자인 안무가나 연출가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케이팝 성장의 중심에는 기획사와 그리고 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대를 빛나게 만들어 주는, 완성시켜 주는 안무 창작자들의 창의적 노동도 자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구조상 권리가 통째로 기획사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악방송 무대 그리고 뮤직비디오,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영화·드라마 OTT, 예능·시상식 특집 무대 등 안무가에 대한 표기는 일관성도 없고 기준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표기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안무가가 본인 참여작을 SNS에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되거나 게시 시기를 제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창작자 본인이 참여했음을 알리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적 보호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케이팝은 전 세계인들한테 보는 뮤직으로, 보는 음악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창작자들한테 이 기본권인 성명표시권,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장받아야 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안무표준계약서 제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협의 단계로만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획사가 보통 갑, 기획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창작자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 실효성 높일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조정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단 2건 그리고 조정 신청은 0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무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체부는 성명 표시의 무화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실로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무가들이 멋진 무대, 케이팝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무가들의 지적재산권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케이팝의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거든요, 안무는. 그래서 K-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창작을 해 놓고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저작권의 확보라기보다도 기획사에 귀속되어 있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본인의 혜택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계약서라든지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안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기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금 대형 기획사를 비롯한 케이팝의 기획사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이 구조의 틀 속에서 이 부분도 녹여서 그런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성명표시권들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K-컬처 300조를 달성한다고 하시는데 안무가들,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까지 보호가 되고 보장받는다면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관광 시작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단체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전담 여행사를 문체부가 지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여기 보면 179개 업체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이거 하실 때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선정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PPT 좀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최근 3년간의 업체.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지금 179개 업체 중에서 유치 관광객이 무단이탈한, 그래 가지고 이 앞에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받은 업체가 이렇게 다 선정이 됐어요.

장관님,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 부분까지 제가 소상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챙겨 봐 주시고.

혹시 어제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무단이탈한 건수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나 체크하신 거 있나요?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보고받은 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2건으로……

○박정하 위원 2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2건.

○박정하 위원 그건 어제 보도 나온 거지요? 이후에는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다음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런 보도는 보셨지요? 첫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6명이 배에 승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많이 사랑하는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오물을 버리는 그런 보도, 이런 것들 다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건 보셨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지정된 업체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장관님이 세세하게 파악 못 하셨다.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무단이탈이나 관리가 안 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하나 마지막 여쭐게요.

최종 책임이 문체부에 있어요, 법무부에 있어요? 제가 이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에 보니까 문체부하고 법무부하고 답변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문체부가 관리하는 179개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에 있고 이미 법무부에도 있고

다. 이 모든 지정의 최종 권한은 법무부다'라고 얘기하고요. 법무부는 또 뭐라고 하냐면 '문체부에서 전달받은 명단에서 받은 대로 승인한 거다. 공문으로 받았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핑퐁해요.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24년 5월에 문체부에서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업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됐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2024년 5월에 취소가 된 업체가 2023년 3월에 문체부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담 여행사로 지정받았던 그 자격증을 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해서 법무부로부터 그냥 단체여행사 승인을 받아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법무부하고 전담 여행사 지정해서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허점이 있어 보이니까 장관님이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그리고 종감 전에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전담 여행사 관리는 최종적으로 저희 문체부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문체부 책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염려 없도록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음은 체육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저는 유인촌 전 장관을 중인으로 요청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실국장님들에게 좀 답변을 요청할게요.

강수상 체육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때 문체부가 삽감했던 체육회 예산 및 사업들 이제 다시 원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가 중입니다. 평가를 끝내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평가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예산 심의되기 전까지 보고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체육회 전 회장 하나 잡자고 체육탄압부가 되어 버렸었잖아요. 예산 삽감, 사업 취소, 감사, 고발 등등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생활체육 예산 416억 그리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면서 생활체육 빈익빈부익부 현상 발생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장악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바로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가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지금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평가 결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산 심의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중단하는 바람에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낮은 단복이 공급되었고, 다 알고 계시지요? 후원사 유치가 갈수록 힘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의 공식 후원사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후원사 다 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말씀하신 부분들 우려를 고려해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그 후원사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하는 형태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속해서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낮은 단복 선수들에게 공급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것 해소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체육회랑.

○임오경 위원 해소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축구협회 관련돼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정우 실장, 강수상 국장, 유인촌 전 장관 명을 받아서 표적감사,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면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대법원 최종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가처분소송은 축구협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은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최종 확정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집행정지는 인용이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런데 본안 소송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간다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 지적에 대한……

○임오경 위원 전 회장과 전 장관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생각해서 빨리 원상복구시키십시오. 바꿔 놓으세요. 계속해서 이거 이어나가시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책임, 징계, 국장님의 받을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면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정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계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종목단체도 많아요. 하지만 챙겨 줘야 될, 잘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저는 항상, 국감에서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올 7월에 있었던 세계대학생대회, U대회라고 결과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400m 남자계주 우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줬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끝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몇 위 한지 알고 계십니까? 27위 했어요. 개최국 일본은 사십몇 위인가 하고 중국이 이십몇 위인가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상혁 선수 1명이 은메달 획득하면서 27위를 달성했습니다. 육상협회에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상혁 선수 같은 선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400m 남자계주 어떻게 감히 U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지금 문체부에서?

탄압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비인기종목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종목들 좀 쟁겨 주십시오. 저는 진짜 포상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기관들은 확실하게 채찍질을 하고 잘하고 있는 종목들, 진짜 역사상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선수들에게는, 협회, 종목단체에게는 끝없는 포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존경하는 서울 송파구을의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 식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이번 드릴 질의는 아마 장관님 전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놀유니버스 등 최대 여행산업계의 대표로 재직하시다가 장관직 맡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인터파크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시작한 여행상품 형태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후불제 여행상품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인터파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하는 형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품……

○배현진 위원 그것 모르십니까, 대표로 계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말하자면 상조회사처럼 매달 적립금을 내고 일부 금액이 차면 여행을 보내 주는 건데 금액이 차지 않아도 일단 다녀오고 그 이후에 적립금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후불제인 여행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여행계처럼 여행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적립자가 이 돈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보내 주는 방식은 굉장히 신박한 어떤 제도 도입이기는 한데 이게 잘못하면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갈 수 있는 여행상품입니다. 이게 인터파크에서 계속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있을 때는 인터파크에서 패키지 상품의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꼭 인터파크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정 회사 제가 계속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그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행·관광업계에서, 국내에서 이런 형태의 여행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관으로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올해 7월에 한 여행사 대표가 이 후불제 여행상품을 팔고 적립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4000명, 피해액이 12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대충…… 지금 장관으로서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심각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20~24년 소비자원에 이 관련 피해로 접수된 사례만도 4년간 240건이에요. 지금 전혀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이외의 여행업계에서 계셨던 경험에 비추어서 후불식 여행상품이 혹시 업계나 소비자 양쪽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기본적으로 여행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가는 일이기 때문……

○배현진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돈이 없으면 여행을 안 가고 돈을 모아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는 게 저희 일반 상식인데 돈이 없어도 가게끔 지금 만들어 준 거잖아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지금 그런데 이른바 대형 폰지·적립식 사기, 다단계 사기 형태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인터파크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여행보험 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무려 90%에 이르고요. 실제 여행정보센터라고 문체부가 운영하는 보증보험에 이 업체가 가입했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하려고 해도 가입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요. 문체부가 돈 들여서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운영 못 할 거면 그만두시고 소비자들 위해서 할 거면 제대로 다시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불제 여행상품의 폐해 파악하셔서 여행사들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하고 있는지 엄단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프로야구 관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략? 1200만 돌파했다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1200만이 야구 직관을 즐기는데 장애인 야구 팬들 직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 좌석이 없고, 둘째 예매가 어렵고, 셋째 어려움을 호소할 창구가 없습니다. 혹시요 이런 보고받으셨을까요? 한화 이글스가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개조해 가지고 2억 원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가 적발돼서 고발당한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도 보셨어요? 저기 보시면 ‘직관 꿈도 못 꾸지요. 야구 열풍에 소외된 장애인 팬’. 제가 각 구단한테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구단 전체 좌석 수 대비 장애인석 비율이 0.4%입니다.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 인구에서? 5.1%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채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어이없지 않으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구단별 장애인석 현황 한번 봐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장애인석이 제일 많더라고요. 원래 여기는 일반석, 그러니까 좌석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구단은 아니에요. 저기 롯데나 두산, LG, 삼성 이런 데 비하면 크지 않은데 장애인석 비율은 NC하고 기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석은 숫자 자체도 적지만 판매 방식 이게 또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래서 장애인석 이용률이 아주 처참합니다. 33.4%밖에 안 돼요.

장애인들이 스포츠관람권 얻으려고 발로 뛰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것 차별이다, 시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고한 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봐 보실래요?

장애인 소외 관련 언론 보도를 쭉 봐 보시면 ‘할 수 없으니 갈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예매 앞에 막힌 프로야구 직관 장애인 팬들 운다’. 10개 구단에서 장애인석 예매 관련 민원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KBO를 통해서 딱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조치가 안 돼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야구장이 있는 소재지에서도 민원이 제기돼도 또 역시 조치가 안 돼요. 체육회, 문체부는 전부 해서 꼴랑 4건이에요, 국민신문고 통해서. 그러니까 호소 할 데도 없는 거예요.

장애인석 예매 민원 구단도 없다, 지자체도 없다, 경기장도 없다, 체육회도 없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럴까요? 앞서 실태를 보시면 충분히, 충분히 민원 제기가 많이 있을 법한데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석은 결국 좌석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좌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복지부가 근래에 시설 점검 착수했다고 그러니까 잘 쟁기셔서, 요즘 시설 많이 좋아졌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관람도 많이 늘고. 스포츠 장애인 관람 주무부처니까 그 책임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 관람권 보장 반드시 쟁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위시해서 체육계의 셀프 징계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어느 종목단체간 협회 운영 비리로 인해서 제2의 안세영 선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셀프 징계를 방지하는, 그러니까 셀프 징계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대로라면요 윤리센터가 있지요. 윤리센터가 열심히 조사해서 징계 권고해도 탁구 협회처럼 셀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면 효력이 꽂입니다. 정해천 당시 사무총장은 퇴사했다고 징계 논의도 없이 그냥 끝났고요. 똑같이 후원금을 끌꺽한 김택수 실무부회장은 지금 태릉선수촌장입니다. 협회에 상관없는 지인을 끌어들여서 인센티브 지급한 유승민 회장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전부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징계하는 셀프 징계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는 겁니다.

선수를 위해 쓰라고 준 돈을 인 마이 포켓 해도 체육회장도 될 수 있고 선수촌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7월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제가 체육회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할 텐데요. 장관님, 저는 이런 셀프 징계를 방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과 단체장은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징계위를 구성하고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게 해서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동감하시면 본 의원이 발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문체부도 셀프 징계로 솜방망이 징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체육단체,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징계들이 공정하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AI산업의 성장과 창작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작권에서는 혹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에 줄곧 혹자를 이어 가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33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9000억 원, 전년 대비 29% 증가를 기록한 혹자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AI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그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23년 116억 달러에서 2033년에 1753억 달러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창작자 권리를 지킬 제도는 이런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그 안에서 누구의 창작물이 포함돼 있는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 현재 제도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AI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와 입증책임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권리자가 침해 개연성을 제시하면 AI 개발사나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사용의 합법성과 면책 사유를 개발사 플랫폼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도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신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면서 대통령께서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제 과제는 문체부가 안게 된 겁니다.

AI산업의 성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AI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AI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보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하나만 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AI 기본법 개정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함께 맞대 주시고요.

또 저희도 창작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AI산업의 성장이라는 산업적 측면도 사실 문제 위지만 함께 들여다봐야 유관 상임위가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이러한 창작자 권리 보호만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또 산업적 성장의 측면도 함께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함께 국회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산업적으로 AI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작자의 저작물이 보호가 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곁으로 보면 충돌 나고 뭘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잘 버무린다면 오히려 창작자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창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체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법안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같이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 예술 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내세우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이 매년 들어가는데 성과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존재 이유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평가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66.8점, 21년 64.9점, 22년 64.7점, 23년 63.6점, 24년에 62.6점, 70점도 매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말하자면 낙제지요. 그런데도 국민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2024년에 1059억, 올해는 1140억 원입니다.

장관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면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지요. 그 기준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더 심각한 것은 성과 관리인데요.

다음 PPT 주십시오.

24년에 주요 사업 개량지표 구성의 적정성과 목표 도전성이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D등급 받았습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개선 필요성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이요. 계속 5년간 낮은 평가 받으면서 기관이 도대체 뭘 바꿨습니까? 5년 동안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PPT 다음 것 보겠습니다.

내부 운영도 문제입니다. 직원 만족도, 노사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가 반복이 됩니다. 내부 운영도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예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과가 이토록 부진한 기관에 왜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체위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고 예결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관 존속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기관들이 공연 창·제작 생태계 조성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고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간 기능 중복과 사업 유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요. 문체부도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문체부는 이미 23년 12월에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에서 스스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 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진단하고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 예산안 보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부 기관들은 수년째 성과 부진, 지표 부실, 운영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술경영지원센터예요. 이런 기관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냥 없애십시오.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로드맵과 성과 기반의 재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민 혈세가 무려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준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공인은 누구를 공인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양문석 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요.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그만합시다. 이게 2016년 성남 축제 토크콘서트에서 김제동 씨가 공인에 대한 정의를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거의 한 10년 전에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에서 전 대법관이자 전 신문윤리위원장인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가 공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전면적 공적 인물, 제한적 공적 인물, 자발적 공적 인물과 비자발적 공적 인물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눴는데 전면적 공적 인물은 김제동 씨와 달리 대통령 등 선거에 출마한 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명한 작가, 유명한 사회운동가 또는 종교 지도자, 유명한 변호사 등이 전면적 공적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제한적 공적 인물, 자발적 공적 인물 이러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법령 자체가.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법령 자체도 없는데 구석구석에 조금씩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 관련 기관의 자율 규정에 공인에 대한 흔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 심의 기준에 그 흔적이 약간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공인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또 일절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생활 보도에 대해서도 공인 보도가 일반 사인보다 넓게 보도의 질과 내용을 허용하다라는 정도의 상식만 있지 그 허용 기준의 규정 내용이 또 없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인이다. 너는 공인이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도했다라고 하는 논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게 지난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공인에 대한 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일정하게 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기준들을 정리를 했는데 문화부가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노조 등등 언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공인 규정을 한번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하는 세미나들을 거치면서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인은 이런 거야라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언론이든 각종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공인 부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영역 그다음에 명예훼손의 영역이 되고 안 되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쟁여만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21세기 중반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을 생각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 지난달 29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하겠다 그랬지요. 물론 지금 트럼프 얘기는 워낙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당장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가 현재까지는 잡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진행되는 과정은 혹시 들으시는 정보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실제로 만에 하나, 이것은 만에 하나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인 관세 협상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미지근한 상태고 어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태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100% 관세가 적용이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영화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데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희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 자체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파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차피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자체도 지금 우리는 전례가 없는 사태지요.

지난 5월 달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산업, 우리를 쭉 집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 영화산업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향후 파장에 대해 점검한 게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가 준비를하거나 대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Q&A를 해서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번에 또 반복적으로 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5월 달 말씀은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어찌 됐든 물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 부분에서 영화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연욱 위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 하신 거예요?

○정연욱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마지막이네요.

장관님,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있습니다. KTV, 아리랑, 국악방송.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여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중이 42%입니다. 국악 방송은 무려 66%가 넘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지요. 평균 근속기간도 7.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리랑방송 같은 경우는 5~9개월 사이가 보통입니다. 초파하는 사람들 대부분 없습니다. 무늬만 프리랜서입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초단기 계약 계속 연장하면서 퇴직금 같은 이러한 사용자가 부담져야 될 최소한의 법적 의무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평균 보수도 28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의 핵심 인력들이 정말로 편의점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최저시급 받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문체부, 이것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도 이번에 파악을 해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방송프리랜서 종합대책 이것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가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어 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송 3사의 직원들 절반 이상이 이렇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프리랜서로 단기 계약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인데요. 이 참담한 현실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감 끝나고 나면 방송프리랜서 종합대책 꼭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 장관님, 차관님들 새로 오셨는데, 뒤에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저도 어찌 하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한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해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적어도 제가 같이 일해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웜블던 경기장의 잔디를 보호하는 매트를 수입해서 제공하겠다,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레나 50억 주고 용역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장관님? 제가 저희 지역에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간공모지만. 최하 6년, 7년입니다. 이 정권하에서는 절대 성과 못 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K-컬처와 관련된 대중 공연장들, 대중소 공연장들 골고루 전국 단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시설, 저희 지역 같으면 K-컬처밸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체부에 경기도 주관 사업이고 경기도공사 민간공모 사업인데 문체부가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문체부 공무원들은 ‘경기도 사업이니까 없다’가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민간공모를 하지만 10만 평짜리 땅에 3만 평 짓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7만 평 경기도하고 연합해서 아레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케이팝 체험관 같은 것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마 아레나 사업이 굉장히 활력을 띠고 공사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네이션이 그런 것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협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국가가 이 문제 관련돼서 ‘우리 일 아니야. 경기도가 자기 땅에다 짓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공무원들, 그런 조직을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기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문체부의 일입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경기장을 바로 공연장으로 전용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해서 1년 내 성과를 내는 것, 당장 6개월 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고위공무원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늘어진다. 5년 후나 6년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들 안 됩니다. 저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역할해 주셔야 됩니다. K-컬처 300조 시대 만드는 데 있어서 대중 공연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문제 관련돼서 정말 특단의 대책 그리고 속도감 있는 결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민간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던 장관님 그리고 일 잘하시기로 유명한 차관님들 두 분, 저는 꼭 성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저희들이 열심히 돋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와닿고 효능감이 느껴지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장관님,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용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이 사업으로 돈을 빌린 기업 예순여덟 곳 중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기업이 다섯 곳밖에 안 됩니다. 돈은 받고 싶은데 표준계약서는 쓰기 싫다 이것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여러 지원 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하면 가산점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1000개가 넘는 사업 중에 17개입니다. 표준계약서가 사실상 의무화가 아니지요. 표준계약서 쓰기가 어려운데 지금 예술계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이런 임금체불 관련 사항이 전체 신고 건 중에 6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데요. 특히 예술공연업에서도 임금체불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체불 금액이 131억이에요. 21년에 비해서 세 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지금 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임금체불로 형 집행 중인 사업장은 공모 사업에서 제외하고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빡빡해서요 소액으로 여러 번 체불하거나 횟수는 한 번인데 큰 금액을 체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준에 안 걸리거든요. 실제로는 체불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서 형 집행 중인 사실 모르고 자백을 안 하거나 첨보가 없으면 체불 사업장들이 계속 공모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해서 공모 사업 배제하는 것에 있어서 노동부랑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이에 맞춰서 예술인 간이대지급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불임금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이야기하셨어요. 성희룡 건이 있는 것도 문제이고 저는 즉각 해임해야 되고 피해·가해자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희룡 건 말고 갑질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 익명 웹사이트의 커뮤니티에 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올렸는데 이걸 본 원장이 게시자를 색출해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기관장 특별담화’라는 제목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게시자 색출해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명백한 직장 갑질이라고 봅니다. 성희룡 건만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갑질이 있는 거고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봤는데 엉망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보낸 자료랑 공시시스템 알리오(ALIO) 자료랑 숫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한테 다시 줬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알리오랑 맞췄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 드릴 텐데요.

지금 성희룡, 직장 갑질, 업무추진비 안 맞는 건, 이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듣

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공공기관으로 이런 논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감사를 꼭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감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조치를 다 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을 아예 배제한다든지 뭔가 더 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인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민 문화 향유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국립문화시설 확대가 있는데 예시로 지금 세 가지 문화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충주박물관을 제외하고 송현동 국립문화시설 또 파주박물관, 사실은 지금 국립문화시설이 굉장히 없는 데가 지방 아닙니까, 비수도권?

그런데 여기 지금 예시로 든 것들 3개 중에 두 군데가 하나는 서울이고 하나는 과주입니다. 과주도 지금 경기북부권이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공평하게 하고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국립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문제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광주에 민형배 위원님 계시지만 아시아문화전당 도시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오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화 관련 국립시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요즘은 게임도 최근에 또 지스타 관련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2017년도에 지정이 됐고 국제오페라축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22회째 맞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2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공연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주요 지역의 그런 거점도시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구축된 이런 분야의 인프라들을 좀 활용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문화 혜택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특히 지금 지역에 문체부 소유 부지가 있는 데가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 후적지 또 대구의 경북도청 후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립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화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들이 추진이 돼 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황희 장관 때는 거기에 뮤지컬콤플렉스 그리고 이전희 미술관이 서울로 유치되면서 국립근대미술관을 그쪽에 입지를 시켜서 문화 허브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벌써 한 5년, 6년째 계속 진행이 돼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올해도 하반기에 기회가 또 남아 있고요. 어쨌거나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했어요. 영화, 미술, 공연, 스포츠, 숙박 아래 가지고 한 780억 정도 투입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대충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특히 미술 전시 할인쿠폰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4% 정도 집행이 됐고, 발급이 됐고 서울이 그나마 80% 가까이 돼서 그렇지 나머지 지역은 2% 수준이고 세종, 인천, 울산, 충남, 전북 이 지역은 0%입니다.

왜 이렇게 미술 전시가 적은가, 미술 쿠폰이 활용도가 적었던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데가 한 10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 47개, 부산 13개, 경기 10개 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5개 이하 그리고 세종, 울산, 충남, 전북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하나도. 그냥 막 뿐인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올해 사실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을 했고 그 부분을 하반기에 집행을 했는데요. 잘 진행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미술 전시 안 되는 지역에 그냥 막 쿠폰을 발행하면 못 쓰여지는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수립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더 봐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정하 위원 끝나고 11월 달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만 장 발급했는데 20장 나갔어요, 0.0004%. 뭐 하러 이거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돼요. 이거는 방식

이 또 제로페이 방식으로 돼서 아예 어르신들이 쓰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뿌려지는 정책 쓰인 것도 문제인데다가 쓸 수 없는 지역에 갖다가 그냥 숫자만 맞춰 가지고 세워 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11월까지 성과 보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 비슷한 거 지난 7월 29일 날 제가 장관님께 여쭈 적이 있어요. 석간신문의 ‘영화 할인쿠폰 유감’이라는 이런 칼럼 보셨느냐고 얘기했고 이게 이러한 취지다라고 하니까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정책은 좀 지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냥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문체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밖에 설계가 안 됐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라니까 급해서 막 만든 건지……

좀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문체부가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보다는 한 3~4년 지난 것 같은 정도로 좀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장관님,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짧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걱정들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 기강 혹은 분위기를 다시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마지막 최종 결과 보고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장관님, 중국이 만만한 나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경제외교에서 협력의 대상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12·3 내란 이후 현재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극우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붙잡고 다짜고짜 중국인이냐고 육박지르고 ‘한국말 해 봐’, ‘주민중 까 봐’라는 협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은 ‘언론이 화교에 다 넘어갔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혐오가 빚어낸 망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니 중국의 안보 위협과 부정선거 개입에 맞선 조치라 둘러댔고 중국인들이 드론을 띠

위 국정원을 촬영한다느니 중국 태양광이 전국 산림을 파괴하고 심지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혐소리를 일삼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중국이 전염병과 범죄의 통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바운드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으며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이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임오경 위원 얼마 전 간만에 제가 명동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상인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활력이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인 단체 크루즈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모 의원은 별안간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이라며 근거 없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펴뜨렸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고 그것을 자신의 성과라고 홍보한 것도 지금 유언비어를 펴뜨리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요.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55억 흑자를 냈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은 내란 정권 2년 동안 폭등하여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구역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괴담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협중 정서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특정 국가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가짜뉴스를 펴뜨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이렇게 가짜뉴스를 계속 펴뜨리게 되면 문체부에서도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도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변인들을 내세워서, 아니면 장관님이 직접 앞장서서 이거에 대한 반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역할을 안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APEC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성공적으로 이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를 찾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APEC 행사를 힘들여 준비하고 있는 경주시민들과 또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실패하면 여기 계신 모든 여야 정치인들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들 진짜 앞장서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혐오정치를 통해서 더 이상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지금보다 한층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변인들에게 매일 브리핑하라고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추가질의를 마쳤고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재재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의로 오늘 국감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8월 21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장관님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우리 주권, 영토 주권은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인근 인접 국가들과 얹혀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 오류와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어떤 거지요? 한국바로알림이라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바로알림……

○ 배현진 위원 올해 3월에, 정부가 바뀌기 전인데요.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미국 NASA에서 올린 우리나라 항공사진인데 바로 우리 코 앞의 바다인데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난 정부가 저희 국민의힘이 창출한 정부였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 잘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건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여행 질병 안내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에게 질병 안내를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올린 것도 바로 코 앞 바다에 재팬이라고 써 있지요, 시 오브 재팬.

다음 화면은요 올해 9월에 업데이트된 CIA 자료인데요. 여기도 일본해라고 표현돼 있고 심지어 독도를 리앙쿠르(Liancourt)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요 우리 국민들이 한국바로알림 서비스에 신고를 한 사안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체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이 오류를 잡아 달라고 공문을 그동안 두 차례를 보냈고 이후로는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장관님, 제가 IOC에 우리 손기정 선수의 일본식 이름, 열한 분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아규(argue)하고 있는 거 말씀 들으신 적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거 시정되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병기로 바뀌었고 위원님께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노력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 국제사회

가 돌아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세세하게 모니터하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일본과 견주어서 혹은 중국과 견주어서 뒤쳐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배현진 위원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 두 차례 보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항의하고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현진 위원 다음 국감이 아니라 올해 다가오는 어떤 상임위에서라도 장관님의 노력으로 이 사안들이 수정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저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15쪽에 ‘우수한 공연과 전시가 지역에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표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8개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공연 실적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것 보이시나요, 표?

호남권 1.9%, 영남권 4.5%, 충청권 3.5%, 강원권 1.5%, 올해 8월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공연 비율이 90%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국감에 계속 앞으로 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역 불균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저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을 저렇게 2등 국민으로, 문화·예술의 2등 국민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국민주권 정부는 좀 바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바꾸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바꾸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거 봐 보세요. 10월 13일 자 뉴시스 기사인데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재검토… 지역 이전 미지수’.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정책이 제가 보니까 문화한국 2035 나왔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진 게 지역균형을 고려하는 거였거든요. 그 과정의 하나로 대구에 국립오페라단, 광주에 ACC 소속으로 서울예술단을 아시아예술단으로 바꿔서 이전한다고 했어요. 이걸 왜 다시 재검토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역문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것과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이전하는 부분에는 사실 궤를 같이하고는 있지만……

○민형배 위원 궤를 같이하고 있으면 계속 가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데 이 부분이 결정되는……

○민형배 위원 흔들리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건.

○김승수 위원 맞아요.

○민형배 위원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맞아요’하고 그러시잖아요. 정말로 문화예술의 시민을 2등 시민, 지역의 시민들을 2등 시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 국민이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 보니까 APEC 정상회의 홍보하는 데 촛불·응원봉 집회 사진이 들어가는 게 이상합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K-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오늘날의 한국을 설명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간 게 이상하다는 말에 왜 멧밋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각자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민형배 위원 이게 어떻게 정치로 바라볼 문제입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위대한 장면인데, K-민주주의의 위대한 장면인데 그것을 보여 주는 게, 세계 정상들에게 보여 주는 홍보물에, 세계에 쏘는 홍보물에 그걸 제시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문화부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야지요.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리랑TV의 케이팝 프로그램에 대통령 출연한 게 이상한 일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상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문화부장관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21년의 ‘오징어 게임’, 올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류가 넷플릭스를 타고 한류 열풍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작업계에서는 당장 성공할지도 모르고 또 제작비 쪼이는 현실에서 차라리 넷플릭스한테 IP를 통째로 넘기고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최고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 데요. 이게 자본 격차 때문입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전 세계에 규모의 경제로 수익을 내고 또 이를 더욱 좋은 콘

텐츠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자본 격차가 더 커진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가 한번 실패하면 휘청거리는 거지요. 투자 리스크가 커지니까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의 하청기지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가, 문체부와 과기부가 40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액은 올해 20조를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무려 50배 차이인데요. 정부 예산만으로 이 자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과연…… 다리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국내 제작사와 글로벌 OTT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국내 통합 OTT 플랫폼 필요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실제 논의가 된 건지, 이 부분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게 우리가 하청 구조처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화·영상산업에 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결국은 넷플릭스 앞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이 돌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사실은 넷플릭스랑 협상할 때도 조금 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서 읍소하듯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IP를 다 주면서까지.

그래서 결국은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펀드나 정부 자금이나, 정부 자금을 써았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적시에 제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그 대안이 어떤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런 측면에서 모태펀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이쪽에 민간 자금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페이버를 준다든지 이런 많은 정책적 장치들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계속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내 OTT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국내 통합 OTT에 대해서는, OTT가 국내에서 다 뿔뿔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통합 OTT가 돼서,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서 영상 작품들을 받아 줄 수 있는 OTT가 있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조은희 위원 제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국내에 있는 몇 개의 OTT는 지금 합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덩치도 키우고 뭔가 플랫폼적인 영향력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영상·영화 쪽 업계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은희 위원 종감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넷플릭스 증인이 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인사말씀 중에 4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역, 계층, 세대 등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균형성장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왜 균형성장이라고 쓰셨나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성장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소멸을 막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의 균형발전정책을 해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수도권의 재집중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보면 배분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지방으로 내려가 보니 그 지방의 문화, 복지, 교육 등 사람의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배분적으로 지방으로 갔지만 그것이 다시 수도권의 높은 문화, 교육, 복지 이런 어떤 정주여건을 찾아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교육, 복지, 문화 등 그런 정주여건을 함께 성장을 시켜 줘야 내려간 자원과 기회가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 지역에 마중물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바로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개념을 확대한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체부 소속의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이 호남이 1.9%, 충청이 3.5%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이 88%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와 여러 가지 인프라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균형발전의 시대에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문체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이러한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 정책을 지방 소멸…… 정책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예술공연 하나를 봐도 이런 것인데 저는 장관께서 장관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이런 측면에서 내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기본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확대된 만큼 거기에 맞춰서 문체부의 모든 지방 균형정책도 바로 그렇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또 문체부 공무원들께서 균형발전 시대와 균형성장 시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콘셉트를 잘 이해하시고.

혹시 장관님, 문체부 공무원들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저를 불러 주십시오. 제가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들려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자리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 경고드립니다. 자기의 어필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스포츠클럽법이 24년에 개정돼서 25년부터 시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장애인스포츠클럽 사업 관련돼서는 사전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클럽 동호회 클럽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잘 기억 못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라든지 시·도장애인체육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 이후에 사후 실시됐습니다. 사전에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담당자가, 장애인체육회에는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합니다. 비장애인체육회에서는 7명 정도가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경우에는 약 3년간에 걸쳐서 159억을 투입해서 스포츠클럽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고 그리고 각종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이것을 만들 만한 예산도 인력도 운영할 만한 시스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스포츠클럽 종합사이트 시스템에 장애인체육회를 엿는 거지요. 이 시스템 관련돼서 사용비 일정하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공동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이기현 위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하는 것 보면, 비장애인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몸

에 저렇게 하실까 놀라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도 제 친구 중에 장애인 친구들이 좀 많은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은 편견과 그리고 차별에 대한 도전 같은 겁니다. 내가 몸 조건은 안 되지만 이런 기구를 차고 또 나의 이런 조건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거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해낼 거야라고 하는 도전이고 편견에 대한 응징입니다.

저는 문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장애인체육회가 일할 수 있는 또 장애인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지금 스포츠클럽이 장애인 쪽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안착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쟁기도 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끝났는데 K-컬처밸리가 지금 진도가 17% 정도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장관님·차관님, 국감 끝나시고 가을에 K-컬처밸리를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후에 만들어질 아레나 준비 사업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폭군의 세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못 봤습니다.

○조계원 위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지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tvN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아까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극작가나 연기자들이 부리고 결국 돈은 넷플릭스가 베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플랫폼 문제, OTT 플랫폼 문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삼성 TV, LG TV가 전 세계 TV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TV에 기본 앱으로 얼마든지 플랫폼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국내 대기업도 OTT 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으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OTT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K-드라마,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문화영토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아까 아레나, 수도권 아레나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여수는 크루즈가 동시에 2대 입항할 수 있는 기항지도 있고 KTX 종점에 맞물려 있고 엑스포, 여수엑스포를 또 성공적으로 치러 낸 경험과 세계적인 그런 관심도 있고 그리고 항공편도 15분 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교통입지, 육해공 교통입지도 갖추고 있고…… 지방에도 얼마든지 케이팝 아레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적지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케이팝 아레나, 이것 저는 복합 아레나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MICE 관광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도 받아들이고 하려

면 그런 복합 아래나 형태로 설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용역들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예전에도 위원님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꼭 좀 올해 안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출국납부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총선을 2주 앞두고 포퓰리즘 감세정책을 펼쳤지요. 그러면서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재원이 손실된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기금의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차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큰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조계원 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2조 3807억 원을 2030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4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출국납부금을 오히려 이렇게 깎아 버렸어요. 관광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2026년부터는 아예 기금 자체가 고갈되고 적자입니다. 표보이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기금을 통해서 관광 용자를 하고 관광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소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워 줘야 되는데 기금이 없으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이분들부터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세는, 출국납부금은 증가 추세입니다. 따져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 즉 관광세는 2만 9000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로 온 외국 관광객들은 7000원만 내고 나가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서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에 612만 명이면 2만 9000원에서 7000원 빼면 2만 2000원, 일인당 2만 2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호구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호구입니까?

조금만 더, 1분만 더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예산을 10% 깎았더라고요. 아까 K-관광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K-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출국납부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출국납부금액,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금액선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

가 그것을 남겨 두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9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사이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기금 수입이 줄어서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처럼 해외에서 출국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출국납부금을 현실화하려는 위원님 노력은 매우 형평에 맞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할 거고요.

적정 수준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1만 원으로 유지돼 왔던 것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또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저는 1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계원 위원 2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액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무래도 국민에 부담을 드리는 부담금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논리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7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상승률을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100.8%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다른 선진국 싱가포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더 올리고 해야 되지만 평균, 아까 2만 9000원 말씀하셨지만 또 부담금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높고 논리적인 차원에서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2만 원 정도는 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마지막 질의 기회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28일에 문체부에서 ‘단 하나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체육계 구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손솔 위원 이게 8월 한 달 사이에 씨름부 선수 폭행 사건, 천안북일고 유망주의 동료 선수 괴롭힘 사건, 대한철인3종협회 미성년 선수 성폭력 은폐 사건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특히 미성년 아동 선수에 대한 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께도 충격이었고 이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책을 보니까 주요 과제에 진입 차단, 엄중 처벌, 예방체계, 피해자 보호 이렇게 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과제 이 대책들이 사실 5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있었던 대책들입니다. 2008년에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중의 하나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2019년 성폭력 등에서도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징계정보시스템 고도화도 2013년에 발표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때도 시행되지 않다가 2019년에 다시 발표한 대책입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비슷한 대책들이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 조금 표현만 바꿔서 대책으로 또다시 돌아오고 있고 그사이에 폭력 사건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2019년 대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돌려막기 대책을 넘어서 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체육계의 지금 고질적인 폭력 사건 이런 병폐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지난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했던 대로, 형식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2019년 혹은 그 이전에 늘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2019년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에는 제가 책임을지고 있다 그게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체육계에서 폭력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솔 위원 장관님, 폭력 사건을 진짜 근본적으로 체육계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평가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정부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문체부장관입니다.

○김승수 위원 문체부장관은 정부 대변인이지요. 또 문체부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정부 대변인으로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을……

○김승수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보면. 지금 국가, 정부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또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화재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김승수 위원 거기 매뉴얼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도 있지만 문체부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709개 시스템이 마비되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 등·초본 발급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민서비스 시스템 웹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가동이 중단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언제 이게 복구가 될 것인지 어떤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지 알려야 되는 게 문체부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체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김승수 위원 안 하셨습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사고수습본부 운영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사고대책본부 운영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께서 매일 회의 주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주재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재했어요? 이게 보면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8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이렇게 회의를 주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까? 29일 두 번, 30일 두 번, 10월 1일 두 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제가 주재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27일 17시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 아니, 그 이후에 9월 29일부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계속 제가 아침저녁으로, 아침 9시와 저녁 17시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김승수 위원 여기는 장관님이 직접 실국장들하고 대면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자체 회의록뿐만 아니고 중대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치, 실질적으로 주재도 안 했어요. 텔방에서 운영했다고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장관님 그것도 지금 거짓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닙니다. 1차에서 4차까지 네 번은 제가 계속 주재를 했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밑에 10월 1일, 10월 2일까지, 이것까지도 장관님이 직접 주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회의록을 꾸미고 그것을 행안부 중대본에 그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아닙니다.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 화재 중이었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관님이 주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허위 보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텔방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게 대면이다 비대면이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 대면이라고 저희가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장관님이 직접 주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참석한 겁니까?

10월 1일 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거기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언제 이걸 또 텔방에서 참석했어요,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텔방에 그러면 장차관이, 실국장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내주고 있어요. 떳떳하면 왜 자료를 안 내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저때는요 이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복구 상황을 계속 보고받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전체 국가 시스템 복구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10월 1일 당시에는 복구율이 15%밖에 안 됐어요. 문체부 자체 시스템뿐만 아니고 문체부의 역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했을뿐더러 자체 회의한 것까지도 이렇게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도 자체 보고뿐만 아니고 중대본 보고까지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서도 이렇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외부 기관에까지 허위로 보고한 사례는 생각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종감 때까지 누가 이런 허위 보고를 주도했는지, 누가 책임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저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재를 했고요. 허위 보고 아닙니다. 그리고 복구 상황은 중대본부의 대변인이 지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따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더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금은 중대본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직접 텔방에서 단톡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텔방에 장관님께서 지시한 내용, 회의한 내용 이것 자료를 제출하라니까요. 자료제출 왜 못 합니까, 지금? 오전부터 얘기를 해도 지금 제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떳떳하면 왜 자료제출 못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내부에서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물리적으로 장관님이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칸텍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 시간에 텔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회의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위원님, 저때는요 계속 진행 중인, 복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들을 계속 보고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회의를 주재했느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출범식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지시를 할 것을 다 하고 저도 보고받을 것은 보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한 내용하고 보고받은 내용 그것을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날짜·회의시간별로. 장관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것.

.....
○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회의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장관님, 최근에 보면 마라톤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000명 이상 대회 수가 19개였는데 금년 9월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254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사망 그래프도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마라톤하면서 심지어는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부상도 176건이나 발생합니다. 이게 마라톤 인구가 늘기도 했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면 참가비 등 사업성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대회가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데, 서약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문체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서약서 보면 제법 규모가 있는 마라톤 대회인데 ‘달리기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최 측에 어떤 민·형사적 법적 책임도 일체 묻지 않는다’. 장관님, 이런 서약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상식적으로……

○ **박정하 위원** 어렵지요? 불가능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가 그냥 손놓고 있어요. 하려면 하고 우리는 그냥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후원 명칭을 붙이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것 좀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국감 전에 문체부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혹시 이런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문체부가 챙기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가 막히게도 저런 답이 왔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가능한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체육 행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 건 가지고 문체부 안에서 안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최하는 측에서는 참가하는 당사들이 책임지고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라고 해 놓고 문체부에서는 그나마도 파악 안 되고 나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답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 방까지 전달이 됐는지 챙겨서 종감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하게 우리 공직 기강이 과연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야 될 계기라고 봅니다. 챙

겨 봐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외청 업무는 벼려 놓은 것 같다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기억합니다.

○임오경 위원 소속 외청 업무 쟁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소통은 하셨습니까? 만나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최대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오죽하면 소속 외청 업무를 쟁기라고 하셨겠습니까? 외청에서 사고 나면 부처에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 문체부와 유산청이 원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더 많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장관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희 K-컬처에 무언가를 태우는 일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K-무비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케이팝, OTT 등을 통해서 알릴 수 있지요. 그러면 OTT 제작지원 사업 심사기준에 완성된 콘텐츠가 전통문화와 K-컬처를 얼마나 잘 홍보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작품이라면 우리 전통문화 K-컬처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은 영상 콘텐츠는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나 K-푸드, K-뷰티를 홍보하도록 하여 한류 콘텐츠가 한류 연관산업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까지 홍보할 수 있는 첨병이 되도록 심사기준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더 활발하게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작품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라마가 10회짜리라면 1회 때부터 10회까지 반드시 K-컬처에 관련된 푸드든 뷰티든 뭐든지 하나씩은, 꼭 1회 하나씩은 방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

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심사기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미성년자 학생에게 참 어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 떨어졌어요. 케이팝 공연 현장에서 본인 확인 갑질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학생의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생활기록부를 제출했음에도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까지 와서 예매자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의 거부로 그 학생은 공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앤텀 콘서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부르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저는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들과 협의하여 과도한 본인 확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좋은 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바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에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한 질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오늘 꼭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있어서…… 대신 제가 다음번 국감 때, 다음번 감사 때 3분을 안 쓰겠습니다. 정말로 그럴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또 그런다고.

○민형배 위원 아니, 저는 하여튼 다음번에 할 때 안 쓸게요. 그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얼른 좀 띄워 주세요, 얼른. 얼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거 얼른 좀 봐 보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88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저 중에 모르는 이름이 누구 누구입니까? 손훈, 김병우, 윤상진 처음 들으셨지요? 저분들은 당시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입니다.

호돌이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그때 당시에 마스코트가 호돌이었는데 곰두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패럴림픽 마스코트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패럴림픽에서 거둔 성적 전혀 기억하실 수 없지요? 금 40, 은 35, 동 19로 7위를 했습니다, 7위. 역대 대한민국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공한 패럴림픽인데 기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민형배 위원 저게 뭐냐 하면 2018년에 제막한 ‘영광의 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 패럴림픽 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출전 선수, 조직위, 심지어 봉사자들 이름까지 있는데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 패럴림픽 관계자는 아무도 저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가 선수들의 핸드 프린팅, 풋 프린팅이 있는데 여기에도 패럴림픽 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 선수의 손이나 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단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 가지 기념사업을 해야 될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저거 봐 보십시오. 서울 패럴림픽 끝나고 조직위가 해체되면서 그 당시에는 장애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대외잉여금 1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돈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법 22조 8호에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서울 올림픽대회하고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 합니다.

세 번째, 2022년 9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지요. 장애인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것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공단은 올림픽공원 내에 1988 서울 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당시 88 서울 올림픽의 슬로건이, 모토가 화합과 전진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전진한다는 그 정신을 잊었습니다. 이거 어떻

게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정신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이 개관하고 그 안에 패럴림픽에 관련된 게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기록하듯이 패럴림픽도 기록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계획 세워서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예.

○**위원장 김교홍** 위원님들의 재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K-컬처 300조 시대 달성을 위해 문체부가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K-콘텐츠 펀드의 운용실태 점검과 미등록 연예기획사 관리 강화 등 문화산업 전반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굿즈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한국 음원의 중국 저작권료 징수 미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용 실탄 불법유통 및 관리체계 미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리랑예술단의 해외공연 과정의 학생 안전관리와 예산집행 부실 문제, 연예인 경호원의 과잉경호, 예술요원 대체복무제도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 처우개선, 서울 중심의 문화시설 편중 해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협정 정서 및 가짜뉴스 대응, 권력 풍자나 비판에 대한 검열 방지, 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소속 부서장 등은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임오경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별도의 정책자료집을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은 3권의 책을 내셨네요.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께서 자료집

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유산청 및 6개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첨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윤양수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김재현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송윤식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공형식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 출석 증인

노관규(전라남도 순천시장)
이시하(대중가수)
차정윤(네이버 웹툰(주) 커뮤니케이션 이사)

○ 출석 참고인

김강석(카지노 보안)
이명선(뉴스타파 기자)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조유솜(회사원)